

소정 이문영 선생님 저작 읽기
0.5 판 (2016.01); 1.0 판(2025.10); 1.2 판(2026.01)

작성자: 박헌명 kucc625@gmail.com

일러두기:

- 1. 원문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였으며, 인용한 쪽이 바뀌면 수직선(≡ 혹은 |)으로 쪽을 분리하였다.
- 2. 원문 출처는 괄호안에 밝혔으며, 첫번째 출처가 실제 원문을 인용한 곳이며, 두번째는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맥락이 같은 것임.
- 3. 여러 분류에 해당되는 원문 (많지는 않지만)은 각 분류에 중복되어 적어놓았다. 다만 비중은 많지 않다.
- 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붉은 색과 밑줄, 핵심어라고 생각하는 단어와 절은 파란 색으로 표시하였다.
- 5. 원문에서 한자로 표시하거나 병기된 것 중 일부는 한글로만 적기도 하였다. (확인 필요)
- 6. 이 문서는 ‘『』’ → 등의 특수문자를 사용하였다 (원문에서 사용한 실제 부호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소정선생님 저작:

이문영. 1962. 『行政學』. 서울, 대한민국: 一潮閣.
이문영. 1970. 『北韓行政權力的變質要因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이문영. 1979. 『겹많은 자의 용기』. 서울, 대한민국: 새발 / 中原文化 (1980 초판).
이문영. 1980. 『韓國行政論』. 서울, 대한민국: 一潮閣.
이문영. 1983. 『民主社會를 위하여』. 서울, 대한민국: 靑史.
이문영. 1986. 『겹많은 자의 용기』, 증보판. 서울, 대한민국: 中原文化.
이문영. 1991. 『自傳的 行政學』. 서울, 대한민국: 實踐文學社.
이문영, 윤성식. 1993. 『재무행정: 예산과 재정행정』. 서울, 대한민국: 학현사.
이문영. 1996. 『논어 맹자와 행정학』. 서울, 대한민국: 나남출판.
이문영, 한승헌, 이해동, 송기원. 2000. 『김대중 내란음모의 진실』. 서울, 대한민국: 문이당.¹
이문영. 2001. 『인간 종교 국가: 미국행정, 청교도 정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95 개조』. 서울, 대한민국: 나남출판.
이문영, 윤성식. 2003. 『재무행정론』. 서울, 대한민국: 법문사.
이문영. 2006. 『협력형 통치: 원효, 율곡, 함석헌, 김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대한민국: 열린책들.
이문영. 2008. 『겹많은 자의 용기: 지켜야 할 최소에 관한 이야기』, 2 판. 서울, 대한민국: 삼인.
이문영. 2011. 『3·1 운동에서 본 행정학』. 서울,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출판부.

1. 기본전제.....	2
1.1 평화: 궁극의 목표.....	2
1.2 민과 관.....	3
1.3 사회단체.....	5
1.4 공직자.....	8
2. 사람·일·방법.....	9
2.1 사람·일·방법 범주.....	9
2.2 범주의 발전순서.....	12
3. 초월윤리.....	13
3.1 사중복음과 인의예지: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	13
3.2 인내와 기다림.....	16
3.3 초월윤리 구분과 순서.....	18
4. 비폭력.....	19
4.1 비폭력이란?.....	19
4.2 비폭력과 말: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	22
4.3 약올림 미학.....	24
5. 최소주의.....	25
6. 개인윤리.....	29
7. 사회윤리.....	30
8. 자기희생.....	31
9. 자기비대화와 체제 경직화.....	33

¹ 이문영(2001: 558).

1. 기본전제

1.1 평화: 중국의 목표

“(1) **부당하게 낮고 없게 된 사람**을 보살피야 한다. (2)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되 **부당하게 높고 있게 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동의에 입각한 양보에 의해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이상의 두 목표를 수행한 개인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학교나 직장에서 제적 해직되며 나아가 옥고를 치르더라도—이 일을 해내야 한다. ... 70년대에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못하게 된 국민일반들이 부당하게 낮게 된 사람의 예가 된다. 비록 윗 사람은 부당해도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방법은 정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 이들이 70년대의 양심범이다.” (1983: 14)

“그래서 이 상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강하다」가 아니라 「너무강하다」의 상태에 있다. 이 「너무강하다」가 하의 반란을 토크하면 당하는 「약하다」의 상태보다 낫다는 것을 구실로 존재를 한다. 약한 것도 너무 강한 것도 아닌 그저 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계층의 비결이다” (1983: 161)

“우선 참신과 거짓신이 있다. **참신**은 평등하고 존귀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과 이 시민들의 정당한 존경을 받는 옷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사람과 그 옷사람>과의 사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 혼란 것은 아랫 사람의 옷사람에 대한 반란과 옷사람의 아랫 사람에 대한 억압의 두 형태이다. ... 그러니까 **참신인 사람과 그 옷사람 사이에는 반란이나 억압이 안보이는 계층현상**만을 볼 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의 상하관계는 누름과 따름 사이에 갈등을 볼 수가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아랫 사람은 옷사람의 권한 행사, 지식, 돈을 가진 것 등에 승복을 하게 되며 옷사람은 이런 것을 갖되 정당하게 가진 것, 즉 아랫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거나 아랫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가진 것은 아닌 것이다. **진전사회는 질서를 갖자는 것이며 반란과 억압을 피하자는 것이다**” (1983: 260-261)

“... 이른바 중산층까지도 돈을 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기는 중산층참여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 한편 돈을 번 부작용의 처리 시기에서 시달림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근대화시대 후기는 곧 저소득층참여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 전기에는 상층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그리고 후기에는 중산층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전술한 둘째 아들이 형성된 셈인데 전기의 둘째 아들은 중산층이며 후기의 둘째 아들은 저소득층이다. 전기나 후기나 다 이들 둘째 아들이 그렇다면 그 당시의 기득권자에게 마구 대드는 **원색적 저항**만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또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근대화 문명의 해결책이다. 원색적 대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각 시기의 둘째 아들을 전기는 한정질서 속의 각양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후기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는 정당 등으로 볼 수 있다. 전기에 출현한 사회집단 중 의미있는 집단은 대학, 언론기관, 야당 등이다” (1983: 276-277)

“이 글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구성요건이 무엇인가를 다룬다. **대안이란 평화의 이명(異名)이다.** 대안이란 무엇무엇에 대신하는 안이다. **안(案)이란 곧 생각이다. 폭력에 대신하는 것이 어차피 폭력일 수는 없다. 폭력의 반대어는 ‘말’이다.** ‘때리지 말고 말로 합시다’라는 세간의 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대안은 이렇게 볼 때에 약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내는 ‘말’이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 말들이 강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정도와 범위가 넓을수록 그만큼 평화가 해당사회에 정착한다** (1986: 290).²

“「梁惠王」 下 4 장의 2 와 같이 **下가 얻을 바를 못얻었다고 그의 상을 비난하는 것도 안되지만 백성의 위에 앉은 상이 백성과 동락하지 않음도 안됨**을 실천하는 정부가 바로 이 ‘강한 정부’이다” (1996: 17).

“나는 孔孟의 핵심 사상을 『맹자』 「梁惠王」 下 4 장의 2 에 나오는 글 **‘즐거움을 못얻었다고 해서 그의 상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며,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과 동락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라고 본다” (1996: 74; 293, 606; 2001: 70, 147).

“두 개 생활의 공존을 문명 속의 행정 과제로 보는 이유는 **무한한 인간의 사욕이 억제되며 동시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이 억제되는 양 생활 간의 균형상태를 나는 문명된 인간의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1996: 605).

“이는 與民同樂하는 상이 있을 때에만 사생활에서의 恒産 마련이 가능하며, 국민의 행동 기준이 성선적으로 되며,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는 부모를 자식들이 존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시작’을 거듭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인가? ... 거듭 말해서 하나의 시작이란 자칫하면 불완전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상의 포악과 下の 난동이 없어야 하며, 백성인 下는 항산(恒産)이 있어서 이것의 결핍에서 생기는 후유증이 없어야 하며,** 이 세상을 사는 행동 기준이 좋을 것 예를 들면 경쟁이나 출세 같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들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시작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공적 생활에서의 문란이 사적 생활에서의 시작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적 생활에서의 집단 이기주의가 先公後私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양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친일파, 군사 쿠데타 세력, 그리고 군사 쿠데타 세력이 손들어 준 세력이 스승인 지식인,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교도소에 넣었던 것이다” (1996: 606-607).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다. 이 논리는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의 논리이기도 하다. 강자가 저지르는 전쟁이 멈춰졌다고 곧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뜻있는 고난을 겪은 약자만이 평화를 마련한다는 것이 『전쟁과 평화』의 테마이다” (1986: 289, 318).

“... 등 자율성이 있는 社會團體의 형성을 주장하는 근본 취지는 **官의 권력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벌거벗은 힘’ naked power 과 民의 무책임한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亂動을 불사하는 힘’과의 原色的인 對決을 회피하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의 官이 ‘웃을 입는 힘’을 갖는

² 그래서 강자의 이성이 도저히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역시 民도 制限選舉를 원은 실시해야 할 처지라고 ... 진단했던 형편이기에 이 성숙치 못한 兩者의 對決을 우리는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 原色の 對決의 결과는 혼란이며 이런 기회를 이용할 이는 정치면에서 극우와 좌익의 정치단체들 뿐이다. 官·民 兩者의 원색적 대결을 회피하는 길은 좀더 合理化한 統治行政構造가 官쪽에서, 그리고自律性 있는 社會集團의 民쪽에서 각각 형성되며, 후자에서 전자에 이르는 輿論과 要求의 供給路가 마련됨으로써 가능해진다. ... 원색적 대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官의 溫情과 民의 亂動’이지만 합리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官의 政策과 民의 平和’이다”(1980: vii).

“벌거벗은 힘이 아닌 좀더 합리화한 統治·行政構造, 그리고 亂動을 不辭하는 힘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는 社會集團이 兩者의 납득할 만한 관계 형성을 우리가 公開的으로 볼 수가 있을 때 우리의 行政과 政治는 비로소 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980: viii).

“많은 관련자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갈등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없다. 그러나 갈등이 폭력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품, 즉 평화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뜻하며 폭력의 행사없이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 출애굽사건에서 평화적 갈등관리의 면모를 다음에 간주려 본다. 1. 실현 가능한 일 한 가지의 요구를 한다. ... ¶여기에서 요구란 현대의 개념으로 사회 압력의 조성을 뜻한다. 사회 압력을 평화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개를 하는 현실적 존재로 본다는 말이 된다. ... 2. 압력을 넣되 미리 어떠한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리고 있다. ... 이 점에서 볼 때 예고란 예언이며 사회압력 조성자는 예언자이다. 3.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는 자유를 줄 정도로 끝까지 상대방을 살려주고 여유를 준다. ... ¶... 기득권자로 하여금 있는 자로 남아 있게는 하되 다만 자기의 권을 양보케 한 사회는 건전한 사회이다. ... 4. 사회 압력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압력을 점차로 늘려 나가고 제안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쪽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괴롭히던 것이—예, 강물이 피로 변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물을 못마시게 되는—나중에는 저쪽만을 괴롭히는 것으로 변화를 한다. ... 5. 죽인다는 말을 안한다.”(1983: 114-116)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자 개개인이 무질서하게 기업주를 괴롭히는 것보다 평화적이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평화적인 조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자가 기껏 선택할 수 있는 압력은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파업이지 기물과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구내의 질서를 파괴해 해 공장의 수위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쟁의는 아니다. ...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을 다만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인도의 83, 이스라엘을 75 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치적 자유 지표가 높은 나라들은 다 평화적 갈등 해소에 성공한 나라들이며, 공산주의 방식의 해결을 모면한 나라들이다”(1983: 120)

“그런데 가장 작은 자가 학대를 받는 상황은 기업주의 견장을 수 없는 횡포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가 있다”(1983: 125)

“적지 않게 대화 중 국민총화니 반공이니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농협과 같은 중간 집단이 건전하게 활성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적이 염려된다. 우리 지성인들의 생각 중 대화, 특히 판민 간의 대화 기술이 어딘지 모르게 판의 온정에 기대하는 발상법을 택하고 있는 것도 염려된다. 사회압력과 이 사회압력의 흡인책으로서의 정책이 대응하는 대화가 아니면 도저히 기능사회가 지는 문제의 핵을 풀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1983: 212)

“이 세상 모든 악의 뿌리는 악한 통치자에서만 나온다고 나는 말한다”(2011: 175)

1.2 민과 관

“통치집단의 합리화가 관의 자발적인 반성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대하여 화해와 압력봉기를 둘다 제의할 수 있는 실력자 사회단체가 형성됨으로써 정치, 행정 수준의 합리화가 가능해진다”(1983: 76-77).

“사회압력이 정당화되는 근거의 하나는 견제되지 아니한 옷사람들은 횡포화한다는 人間性에 기인한다. ... 사회압력의 효용을 질서—힘의 횡포화를 막는—와 오늘날 많은 정부의 주관심사로 되어 있는 효율—밀의 사람의 참여에서 생기는—에서 찾는 것이라면 사회압력은 언제나 이 압력을 흡인해들이는 정치 체제와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질서 유지의 면에서 볼 때에 정치체제가 압력을 흡인해 들일 능력이 없는데도 과다하게(흡인능력과 대비하여) 압력이 생길 때에는 분의 아닌 혼란이 생기게 되어 이룩하려던 질서를 오히려 못지키게 된다. 그런가 하면 사회 압력이 전무하면 관의 일방통행이 심해지는 과잉 질서라는 무질서가 생기게 된다.”(1983: 99)

“사회압력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改革에 있지 革命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작은 시작이라도 시작해야 무엇이냐 시작이 되는 것이다. ... ¶... (3) 조직개편: 문제체리를 위한 결정을 내릴 담당자인 관료가 형성 안된 것과 담당자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하에서 결정을 내려져 왔으며, 그나마 결심 작성에 장시간을 요한다는 것이 오늘의 조직상 문제다. ...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된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조직에 충원될 공무원들을 충분히 대우하여야 한다. ... 한편 기업주는 사유재산의 보장을 받고 있어야 한다. ... 사회압력이 발생할 때는 몰라도 일단 압력이 발생할 정도로 산업이 성숙화해 갈 때에는 이 압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효율과 인화가 이룩된다. ... 사회압력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전체체가 달려들어 해결해야 할 총체적인 과제이다.”(1983: 106-109)

“오늘의 세상에서 나라의 왕을 주권자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오늘의 왕은 시민이다. 시민이 시민의 권리로서 행한 불복종이기 때문에 조사관 앞에서 목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톨스토이→간다→소로우→마틴 루터킹을 잇는 시민 불복종운동의 행동원리이다. 이 경우 불복종자는 그러나 불복종의 가격을 지불한다. 불복종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시는 이가 예수이다”(1983: 118).

“같은 말도 民이 할 때와 官이 할 때에는 개념의 변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효율중심의 교육만해도 이를 순수하게 民이 강조하면 일종의 실학사상같은 것이 된다. 관이 강조하는 것을 民이 받아들일 때에는 인간을 무시하고 또한 수단을 불문하여 성과와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으로 잘못전달되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은 民이 해야 올바르게 된다”(1983: 165).

“즉 1970년에 들어와서 이 집권화된 세력이 불가피하게 분권화에 좀 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이 분권화에 의한 착안도 단순한 이데올로기에서가 아니라 **분권화를 모색하지 않으려 해도 안할 수 없는 상황변경**이 그 주요 원인같이 보이는 것이다”(1983: 194)

“협조가 잘되는 상태는 굴종이 횡행하는 상태의 극반대 상태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고 제일 좋은 일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다. 협조의 형태로 세가지가 발견된다. (1) 관내의 협조, (2) 민 사이의 협조, 그리고 (3) 관민 간의 협조이다. 이 셋 중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관민 간의 협조이며, 제일 적게 강조되는 것은 관끼리의 협조이다”(1983: 210)

“행정이 민중을 위해서 있다함은 무엇보다도 행정이 그 관료제도의 구성원인 공무원이나 그 관료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국민이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임을 지칭한다. ... ¶ 민중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란 민중의 것을 빼앗는 행정이다.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의 권한을 빼앗으며, 행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며, 행정부가 상대를 하는 국민들은 그 안에서 상호간에 부당한 권위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체제는 인간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적극적으로는 남이 자유스럽게 살도록 보호·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민중을 위한 행정이다. 이 글에서 행정이란 국민을 위해서 서서비스를 하는 작업으로 본다”(1983: 233-234)

“민중을 위한 행정이 가능해지리라는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는 오늘의 집권자가 국민을 놀려서 엔조이도 하지만 경제발전엔 관심을 갖는데 있다. 경제발전엔 관심을 갖다 보면 자기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야만, 즉 <새 힘>이 생겨야 오히려 GNP가 올라가며, 국민들의 물질적 혜택요구가 오히려 경제를 돌게 해주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요구가 되며,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만 일이 잘 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 조직을 분권화하며 국민의 돈과 국민을 키워서 사용하는 행정 방법도 다 경제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임이 분명하다”(1983: 250)

“집권층이 사회내의 정상계층과 내셔널리즘을 복종시켜서 <억압능력>을 행하는 근거가 있기는 하다. 그것은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발전이다. 이 둘을 합하여 우리는 곧잘 <건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 한편 압력이란 국민들의 (1) 발언권 증대와 (2) 물질적 혜택의 요구 증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와 재산권의 보장, 이 두가지는 근대인권사의 기저를 이룬다”(1983: 236)

“**민**의 좋은 행동을 **관**이 배우며 **관**의 나쁜 행동을 **민**이 배운다. 이 말은 원래 **관**은 좋은 행동을 할 능력을 안 가졌다는 것이기도 하다. 거의 일천년에 이르는 外侵과 끈질기게 이어진 내부에서의 虐政에도 불구하고 우리 겨레가 인접민족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남은 공은 민에게만 돌려야 하지 않은가? ... 主權在民이란 말은 어찌 ¶ 맞는 말이다. 주인인 국민이 만들어내는 감동,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국민의 合理性的 抵抗**, 祝祭분위기의 편제가 국민의 종인 통치자를 변하게 만든다”(1991: 29-30).

“... 즉 **모든 나쁜 것은 관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좋은 것은 민에서 나왔다**는 것이기에 아까의 예에서 아버지가 갖는 불신은 세상을 못믿어서이고 이 못믿는 세상은 권위형 문화를 상징하는 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1991: 42).

“하나의 마음은 백씨네 며느리나 내 동네사람들의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잘사는 사람들 틈에서 주눅이 든 수위나 출세지향적인 내 제자의 마음이다. 전자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사람이 갖고 나온 天賦의 마음**이며 후자는 세상이 나빠서, 더 자세하게 말해 나쁜 정치의 영향과 구조 속에서 생겨난 마음이며 권력중심을 못벗어난 마음이다. 그리고 후자의 악함이 극성스럽기 때문에 전자의 짓눌린 선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우리의 정치는 선한 사람들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많이도 화나게 해왔던 정치다. **나는 천부의 마음에 주도적 위치를, 권력중심의 마음에 종속적 위치를 부여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1991: 44).

“...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나는 원은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쁜 행동은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그 자체여야 할 여자가 타고난 행동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습득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자까지도 새치기하는 행동은 새치기를 해서 정권을 탈취한 이들로부터만 배운 것이다**”(1991: 44).

“이른바 개인악(個人惡)보다는 구조악(構造惡)이 더 나쁠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선한 집단에서 일하는 나쁜 사람보다는 악한 집단에서 일하는 의리있고 멋진 사나이가 더 나쁘다는 것이다”(1986: 47; 동아일보 1971. 8.2).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구조선(構造善) 속에 있는 개인악(個人惡)에는 가혹하지만 구조악(構造惡) 속에 있는 개인선(個人善)에는 보다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 ... 혹 우리가 근치안이 되어 개인악을 미워하는 나머지 그 개인이 속해있는 구조의 선을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혹 우리가 여러척착한 개인선에 홀리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구조의 악을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다”(1986: 48-49; 동아일보 1971. 7.21; 1996: 4323).

“정부권한의 원천은 둘이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여기에서 예시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신장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피치자가 정부의 존립을 동의하는 것이다”(1991: 136).

“원래 국민과 정부 간에서 온기의 원천은 국민이다. 국민이 온기를 발하며 정부가 이에 따뜻하게 반응하여 국민과 정부간에 상호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 <서경>(書經)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의 들고 붉은 우리 백성의 들고 붉으로부터 나오며, 하늘이 선한 자를 드러내고 악한 자를 두렵게 함은 우리 백성이 드러내고 두렵게 함으로부터 나온다.” 정부(하늘)가 귀찮게 들고 눈뜬게 붉은 정부(하늘)에게 보고 들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국민들의 보고 들음을 따라 귀찮게 들고 눈뜬게 볼 따름이며, 정부(하늘)가 밝혀주고 두렵게 함은 정부(하늘) 자의로 좋아하고 미워함이 있는 것이 아니요, 국민들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따라 밝혀주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2001: 42).

“2. 통치자 형의 악은 한마디로 말하여 폭력 사용이다. 3. 통치자의 악을 바로잡는 능력은 시원적으로 통치자에게 없다. 4. 통치자의 악은 피치자가 통치자를 향하여 악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해야 바로잡힌다”(2008: 65).

³ 원문 인용.

“나는 악은 민(民)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는 정권에서 나오며, 이 악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했다”(2008: 268).

“생각과 생각을 꺾내려는 욕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커진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생각하는 백성만이 따라서 산 백성**이다. 산백성이라는 나무가 피어내는 꽃이 조직체들이며 이 나무가 결실해 내는 열매가 대정부교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동학혁명에서 들어 인내천사상 집강소 대정부교섭 등의 세 과정은...”(1983: 144).

1.3 사회단체

“(1) 사상의 표현이 정치제도를 만들며 정치제도의 하위구조가 행정이다. 따라서 민주사상만이 민주제도와 민주행정을 만든다. ... (2)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이다. 따라서 71년 후의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가져온 자가 아니라 절망을 가져온 자 밑에서 의미있는 고난을 겪은 자들만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하나의 테마이다. ... (3) 바람직한 행정주사인 공무원의 탄생을 우리 역사의 업적으로 보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 ... 주사는 옷사람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글씨나 쓰는 한낱 심부름꾼인데 ¶이처럼 격돌하는 데모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환상에 속한 발상이다. 그렇다 이 글은 환상에 관한 글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글이다”(1980: 350-351).

“이 설명은 고작해야 주사인 행정인을 아무도 그를 수단시하여 대우할 수 없는 인격인으로 보며, 의미있는 일은 주사와 농성하는 대학생과의 대면상황에서 형성되며, 행정부 내에서의 문제처리는 주사와 주사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나의 문제 제기와 유사한 설명이기도 하다”(1980: 363).

“포악한 세상에서 약자가 사는 비결을 동물세계를 빌어 동화를 쓴 「이솝寓話」에서 악한 동물의 행동을 대체로 세 가지로 大分해 볼 수 있다. 강한 동물을 피해서 사는 일이 그 하나이고 智慧를 갖는 것이 둘이요, 團結을 하는 것이 셋이다”(1980: 366).

“정치발전을 촉진한 의미있는 場은 (1) 反體制운동 (2) 체제내 개혁 (3) 민중적 집단운동 (4) 사회집단의 형성 (5) 통치집단의 형성 등 다섯이다”(1983: 14).

“... 통치체계가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은 ... 하나는 통치체제, 국가, 그리고 사회집단이—이 셋중의 主因子인 통치체제가—국민에 의하여 견제를 받는 일이고, 둘은 이 세 인자들이—역시 셋 중의 주인공인 통치체제가—「일」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일이다. ... ¶...합리화를 위해서 열려져야 할 길은 최소한 통치체제가 일」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길이다. 일」에 의해서 권력이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해서 일」이 잘 진행만 되면 권력행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뜻이 된다. 일」에 의한 견제는 이념형 견제와는 달리 좀더 견제의 필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점이 다르다.”(1983: 44-45)

“정치체제의 우경화란 이 글이 제시하는 발전순위에서 볼 때에 사회집단과 통치집단이 형성되지 않음을 지칭한다. **사회집단**의 형성이란 이들 집단의 자율화를 일컫는다. 통치집단의 형성이란 국민합의에 의한 정부수립을 일컫는다. 민중적 집단운동도 없을 정도의 무력한 민중도 소망이 없는 민중이지만 집단운동 자체만을 목적삼는 민중도 소망이 없는 민중이다. 다행히 학생과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의 민중은 사회의 건전한 활성화 전망이 전무할 때에만 집단운동을 펴왔다”(1983: 22).

“공화당이 퇴장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공화당이 70년대 기술들의 공직을 유지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며 이들이 불안때문에 우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복없는 정치를 구현하는 상징을 공화당의 존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재야만이 민중적 집단운동을 비물리적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력자이며 재야만이 정치발전을 위한 운동에 시발을 건 사람들이다. 재야가 이와같은 합의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재야가 얻어내는 직접적 이득은 재야인사가 입을 수 있는 신체면에서의 손실이 없게 되는 일이다”(1983: 23)

“긴급조치 4 호니 9 호니 등을 위반해 구속된 인사들은 반체제운동자이다. 반체제운동자의 수는 소수이다. 그러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력한 것이 아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한다.... 체제 외에만 명백했던 악이 체제 내에서도 알게 되는 단계가 체제 내 개혁의 단계이다. 우리의 경우 중도통합론과 참여 속의 개혁을 屈從의 구실로 말했던 체제내 야당 신민당이 민주회복을 내세우게 된 것이 체제내 개혁의 시효다. 민중적 집단행동의 예는 釜馬사태이다. 사회집단의 형성운동으로 볼 수 있는 몇가지는 달라져가는 新聞, 자율을 내세우는 大學, 체제개전[선]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신민당, 어용 위원장을 추방하는 노동조합 등이다. 改憲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정은 통치집단형성을 위한 일정이다”(1983: 15)

“이 미미한 견제보다는 훨씬 정부를 당황케 하는 것은 社會集團에 의한 견제같이 보인다. 작년 가을부터의 현상으로 볼 때에 활성화한 사회집단을 예시하면 대학(교수들은 아니고 학생들), 기독교단체, 동아일보, 야당, 민주회복국민회의 등과 같다. 이들 단체들의 주기능은 **혼미**상태의 지적에 있다”(1983: 59).

“「관민 양측에서의 기구와 사회집단발전」 중 사회집단의 한 종류인 노동조합만 활성화되면 다른 과정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 무엇보다도 노조가 있음으로 얻는 장점은 무질서한 난동과 같은 인권운도(1 항의 내용인)를 끝장낼 수가 있는 점이다. 임의단체들의 요구보다는 공식기구들의 요구가 더 대화의 상대가 될 만한 말들이다”(1983: 61).

“이는 우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가야만 할 길은 무엇인가. 이 길은 **사람 중 가장 작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길이다**. 이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람에 따라 노동자라고 불러도 좋고 民衆이라고 불러도 좋다”(1983: 62).

“... 관과 민 사이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유지하기 위하여 횡포를 일삼을 수 있는 관과 난동을 불사할 수 있는 민 사이에 적어도 (1)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 (2)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체사회의 목표 (3) 관의 횡포와 민의 난동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이 한 예가 이 글이 검토할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4) 합리화한 통치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1983: 76)

“... 정부에게 정책투입과 역할을 하는 국민과 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세우며 이를 집행하는 정부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황포의 길을 달리기 쉬운 관과 이에 맞서 난동의 길을 택할 것도 불사하는** 민 사이에 전술한 교회 대학 언론기관 야당 농협 노동조합 등과 같은 중간단체가 필요한 것도 역시 관과 민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을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슬픔에만 빠지지 않고 기쁨을 형성하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고자 함이다”(1983: 9).

“우리 근세사에서 역사에 역행한 세 개의 응어리를 이조의 망국정부, 이승만 독재, 유신정부 이렇게 볼 때에... 한말의 경우 동학혁명시의 집강소 운동 독립협회의 시도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등이 그 당시의 우리의 대안이다. 이승만씨에 대항하여 동아일보 대학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야당조직이 있었던 것도 우리 거리의 업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79년 이후 현상을 볼 때에 제야의 단체들은 말고라도 신민당의 활성화 그리고 복교학생과 복직교수를 받아들이는 대학 등은 통치체제와 민중의 중간에 선 의미있는 사회단체라고 보아야 한다”(1983: 6).

“(1) 위정척사사상을 내세운 최익현의 움직임. 그의 흑산도 유배 1876. (2) 개화사상을 내세운 김옥균, 박영효 등의 움직임.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해가 최익현 유배 후 8년인 1884년. (3) 동학사상을 내세워 전라도 고부 군민들이 동학집주 전봉준의 영도하에 군주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 항쟁을 일으킴. 갑신정변 후 10년인 1894년. 이후 의병과 독립군의 활동이 이어지고,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남. (4) 1894년 동학혁명시의 집강소, 1896년의 서재필, 윤치호 등 30여명이 발기 결성한 독립협회,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등 집권자와의 대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의 결성. 광복운동을 이상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4단계가 저항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역사적 체제가 가는 길에 역행하는 첫번째는 그 전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과거지향적 개혁자이다. 최익현같은 분이 그렇다. 이 과거지향적 반체제 시도로써 소기의 개혁이 이룩되지 않을 때 현재 속에서 안주할 수 있는 체제내자의 반발이 둘째 단계로 나와야 한다. 이는 잘못이 체제 내에도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체제내 개혁이 꺾이면 행동적이며 미래 지향적 개혁이 세째 단계로 나와야 한다. 이 단계의 개혁이 동학혁명, 의병, 그리고 3.1 운동 등이다. ... 동학혁명이니, 의병이니,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민중의 힘을 가지고 집강소나 독립협회나 임시 정부니 같은, 말하자면 대체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1983: 92-93)

“근세사에서 이 4단계 시도가 어떻게 이승만 독재체제를 붕괴하는가를 보자. 이 시도가 다 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며 이런 시도가 다 있었다는 점에서 광복과같이 우리의 역사는 위대했다고 본다. (1) 현재자 이승만에게 반대를 한 반체제적 과거지향자의 거물은 임시정부의 수반인 김구이다. ... 그는 국제 관계에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국내에서는 부국강병 정책을 내세워 독재를 하는 것과 반대되는 문화내지 민주정치를 추구한다. ... 기득권자로 묘사된 한민당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은 우리 근세사의 주요 업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2) 우리 역사상 드물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은... 23) 미래지향적이며 행정적 개혁의 시도가 산발적으로 1952년 정치파동 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개혁의 금자탑은 1960년의 4.19이다. 그러나 4.19는 이듬해인 1961년 5.16에 의하여 대치된다. (4) 부산 정치파동 3일 후 김성수 부통령이 이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낸다.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취직을 하고 들어간 부통령이니 국무총리 등이 있으나 이승만씨 밑에서 고관을 지내던 이들이 빠져나와 반대세력을 구축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1983: 93-94).

“민주정치와 여론의 관계에서 선거는 여론을 반영하고 정당은 여론에 봉사해야 제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토론은 이러한 전제로부터 볼 때에 우리의 권력층은 민주주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은 실천적 정의감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에 있어서 시급한 처방은 지도적인 中間層의 강화라는 것이다. 언론기관·사법부·노동조합·여성단체·지식인 등이 민주적 **중간집단**으로서 언급되고 있다”(1983: 204)

“이 지도자/전체의 강조/계층의 약세화를 가져오는 힘을 여기에 지칭하여 <새힘>으로 일컫는다. ... 새 힘 하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등장하는 사회집단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들의 동업단체인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과 같은 것들이다. ...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참신의 탄생과정을 (1) 지배하는 힘 (2)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 (3) 새힘 (4) 새힘 밑에서의 효율 (5) 개인이라는 힘 (6) 개인이라는 밑에서의 효율로 서열화할 수가 있다. ... 마치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작업이 있듯이 부모가 재미를 보는 성행위라는 작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힘인 자식이 출생한다. 이 자식이 마치 새힘 밑에서의 효율이 증대하듯 성장하니까 드디어는 자식의 결혼과 분가라는 획기적인 자율단계 이룰때면 개인이라는 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분가한 자식은 끝내는 자기의 부모의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 고유의 체제하여세 자기의 것을 늘려가는 것이다”(1983: 266-268).

나는 이제 공무원이 할 일은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라고 한다. 남에게 빼앗겨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빼앗기는 일은 나는 분권화(分權化), 인간관계의 향상단계, 국민에 대한 봉사, 룰 오브 에러(rule of error;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원칙) 밑에 있는 관리(管理) 등으로 설명을 한다. 아가페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한다”(1986: 60; 여성동아 1972. 4).

“行政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함은 무엇보다도 행정이 그 관료 제도의 構成員인 公務員이나 그 관료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국민이나가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임을 지칭한다. ... 인간을 위하지 않은 행정이란 인간의 것을 빼앗는 행정이다.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의 권한을 빼앗으며, 행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며, 행정부가 상대를 하는 국민들은 그 안에서 상호간에 부당한 권위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체제는 인간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적극적으로는 남이 자유스럽게 살도록 보호·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을 위한 행정이다”(1980: 250).

“이와같은 어려운 목표관리를 위해서 관과 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은 학생, 교수, 종교인, 언론인, 문인 등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다. ... 해당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이념을 제공하는 일, 오늘의 형편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저소득층의 편에서 서서 민주적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일이 지식인의 임무이다. 그리고 책임있는 지식인의 의견과 압력을 받아들여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정치·행정체제의 정상적 임무이다”(1983: 84).

“사람에 대한 태도 중 가장 나쁜 태도는 미움, 박해와 억압, 빼앗는 것 등이며 가장 좋은 태도는 사랑, 봉사, 주는 것과 같다. ... 돈 번 사람을 보면 나도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도 어떻게 줄을 잡아 형제를 하며 회사재산을 빼돌리나를 생각한다면 이는 비정상이다. 쓸모와 실용성이 있는 공부와 지식을 위한 지식습득이 있다고 본다. ... 좋은 의식이 보급되도록 자극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시책, 교육제도, 가정교육, 종교개혁 등 다양하다고 본다. 이에 첨가하여 개인으로서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행동을 하는 일**이다.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되는 수도 있고 노조의 모금에 응할 수 있고, 농촌봉사대에 나설 수도 있다”(1986: 64; 노동문제 제 4 집 1972).

“물론 못한 야당이 어진 야당만은 못하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신통치 않더라도 야당이 살아 남아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1986: 140).

“만일에 자신이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정권 스스로가 만드는 상황이다. 법은 피치자만이 지키라는 법이 아니고 통치자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을 통치자가 지키지 않을 때 아무도 규칙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고 혼란이 생기며, 이 혼란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현상이다. 피치자인 국민에게 주는 신호는 비록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말려들지 말고 비폭력의 길을 가야 한다는 신호이다. 악법을 지키고 죽은 소크라테스는 행동하는 양심의 조상이며 끝까지 비폭력의 길을 간 예수는 평화를 이 땅에 준비하는 교회의 머리이다. 포악한 자는 스스로 망하지만 악한 자가 망한 후의 교회는 비폭력의 실력자만이 구축한다”(1986: 289).

“집권자는 현재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 교수를 추방하려고 한다. 즉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집권자는 스스로 그 법을 버리고 새롭게 악법을 만든다’ 이것이 고난의 구조의 두번째 특징입니다. ... 마침내 그것은 더욱 진전되어 집권자는 자신이 정한 악법을 집권자 자신이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 ¶ 소크라테스가 권력이 선사한 독배를 달게 마신 것, 거기에 있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할 수 있는데도 독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는냐고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집권자가 만든 법을 그 집권자 자신이 지키지 않지만 법을 따름으로써 집권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결국 독을 단숨에 들이킨 것입니다”(1986: 340-341; 『世界』 2 월호).

“유신체제 속에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새시대를 여는 대안으로 만들어낸 거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하나는 이 쪽은 말을 못하게 폭력을 사용하지만 다른 쪽은 비폭력 저항의 길을 간다. ‘주먹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합시다’라는 흔히 듣는 말은 진리이다. 유신체제 때에 구속된 ¶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반체제인사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 폭력행사를 거부했다는 데 있다. ... 두번째는 부당한 권력행동을 하는 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 ... 세번째, 상대는 부패해 있었지만 반체제인사들은 개인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 끝으로 상대는 자기과시 쪽으로 치달아 살았지만 반체제인사들은 자기희생을 감내하며 살았다. ... 반체제인사들은 나의 것을 내주고 또 내주어도 오히려 더 내어주고 싶어 애타하는 갈증으로 자기희생을 했다. ... 이상 네 가지의 거부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하는 일로써 어떠한 일이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가의 세 면에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희생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가치를 말한 것이며, 악한 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람의 편을 드는 일은 ‘일’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비폭력과 개인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은 ‘방법’에 관한 가치이기도 하다”(1986: 318-320; 대학주보 1985. 3).

“... 이 경우 이 교수가 내세웠던 것은 모름지기 대학은 어떠한가 한다는 합리성이지만 이분을 움직인 것은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하는 아들을 입학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였던 것이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깊은 동기를 갖는 것이 이 이해관계이며, 이것보다 좀더 외면에 나타난 것이 사회적 관습, 이 사회적 관습보다 좀더 외면에 나타난 것이 인간관계, 끝으로 제일 거죽에 나타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본다. 추운 교도소 감방에서 나는 양파에서 파란 잎이 나오는 것을 관찰한 기억이 난다. 파란 성장물의 뿌리는 추위 속에 얼어 있는 거죽이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는 중심부라는 것을 기억하며...”(1991: 120)

“이 단계에서 지성인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다음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해당사회에 그전과는 다른 형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고, 둘을 새 인물들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일이고, 셋은 이 사회집단들이 정책을 발전시켜 해당 사회의 통치집단에게 형성된 정책의 실현을 요청하는 일이다. 이 셋을 한마디로 말해 사회집단의 형성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인물만 있어도 안되고 새 인물이 사회집단을 형성할 정도여야 하고 정책은 단순히 인물에게서 나와서는 안되고 사회집단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1983: 70)

“하나의 왜 인간정신의 탐구가 행정에 필요한가를 답함으로 생기는 입장이다. ... 김인곤의 생각을 따른다면 생명체인—말하자면 숨을 쉬는 생명체인—사람에게 한숨이 있는 한 이 한숨을 쉬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술에 인간정신이 관여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기 때문에 행정기술에 와닿는 인간정신은 역시 김인곤의 말을 따르면 공허함이 와닿는 것이다. 그리고 공허의 행저학적 표현은 반독재이며 이 반독재가 행정의 본질을 탐구하는 제 1 입장이다. ... 평범한 사람의 일상생활 *daily life of ordinary man* 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입장이 행정의 본질을 탐구하는 제 2의 입장이다”(1991: 61-62).

“(2) 사생활의 시작 중 가장 먼저의 시작에 해당하는 향산을 上인 官의 횡포 때문에 차지할 수 없게 되면, 이러한 上인 官은 견제되어야 한다. 즉 아무리 공적 질서가 사적 생활에 대하여 우위에 놓인다 해도 공적 질서가 늘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先公後私가 적용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두 영역에 대한 억제와 견제는 공적 질서와 사인로부터 독립된 민간인 스승에 의하여 교육된 인물들에 의해 실현된다. 즉 스승은 두 개 시작 간의 갈등 조정 능력을 길러내는 사람이다”(1996: 608).

“인간·종교·국가는 모두 인간의 죽음과 맞바꿈으로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귀중한 것들이다. 노예는 죽음을 무릅쓰고서야 자유인이 되며, 종교는 교권의 탄압을 떨치고 일어나야 참 종교의 자리를 얻으며, 국가는 국민의 피흘린 대가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로 태어날 수 있다”(2001: 16).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핍박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새로이 인식해 그 역할을 담당해나간 사람들인 아브라함·야곱·요셉·모세·선지자들·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2008: 70).

1.4 공직자

“계획세운 것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착안하고(역시 비참한 현장에의 관심때문에) 상관의 비위를 맞출 생각만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밖에 있는 국민과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며(비폭력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기능보지자 정도로만 보지를 말아야”(1983: 77)

“공무원이 겪는 인간관계를 두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상급자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을 해방하는 조직의 원리**는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이다. (1) 분권화(웃사람의 횡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 (2) 삼권분립(행정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1983: 241)

“나는 치를 긁은 치르고 자기의 몫을 늘려 나가는, 경우에 맞는 성장을, 한 개인에게서나 국가에서나 보고 싶은 것이다”(1986: 62; 샘터 1972.7).

“해결의 역사발전논리인 정반합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폭력으로부터 자기희생에 이르는 실천은 반에 해당하는 행동이지** 이런 행동을 습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폭력에서, 공무원이 비폭력의 덕목에 해당하는 권력남용의 견제를 강조하는 반의 과정이 있는 후에야 폭력과 비폭력의 순환을 초월한 제 3의 가치인 합리적 지배** 같은 것이 공무원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본다. 이 강의는 반응을 중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강의는 습을 중국의 목적으로 하며 이 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반응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강의는 원은 반응을 내세운다. **반없이 습에 이르지 않으며 반이 있으면 으레 자율적으로라도 습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1991: 30).

“... 행정조직에 속한 공무원의 세 개의 행동강령을 다음에 만들어 본다. i)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법’은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을 매일매일 닦아서, 이 학문을 갖고서 조직 내에서는 상사를 존중하며 조직 밖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전문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다만 상사에게 굴종하며 조직 밖의 국민들에게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다. ii) 공무원이 할 ‘일’이란 민주·복지국가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상사에게 상납하는 대가로 ‘이(利)’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iii) 공무원인 ‘사람’이란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 앞에서 는 존귀한 존재이지, 상사와 조직 앞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다”(2001: 277, 465).

“첫째, 공무원이 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을 매일매일 닦아서 이 학문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는 상사를 존중하며 조직 밖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전문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다만 상사에게 굴종하며 조직 밖의 국민에게 교만해서는 안된다. 둘째, 공무원이 할 ‘일’이란 민주·복지 국가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상사에게 상납하는 대가로 ‘이(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공무원인 ‘사람’이란 전문지식 앞에 서는 존귀한 존재이지, 상사와 조직 앞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다”(2008: 561).

“조선조 때 고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시문학(詩文學) 하는 사람들을 첫 자리로 뽑았지 법률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던 것을 나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 공직자는 인간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한낱 기술자여서는 안된다”(2008: 452).

“둘째, 대통령 직무실이나 목사실에 간혀서 못보고 있던 통치악으로부터 해방된 통치자가 인간 일반의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예수의 3 대 유혹을 지금 내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잘못을 이해하는 틀로 이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2008: 485)

“미국행정학자들은 공적인 조직의 목적을 관리하는 이를 공직자로 보지만, 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가 공직자라고 본다. 공직자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모범은 예수이다. ... 내 생각에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가 아니라 국민을 정치하게 만드는 이여야 한다. 목사는 교인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이가 아니라 교인들이 죄를 안짓도록 돕는 이여야 한다”(2008: 485).

“... 즉 정치 정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낱 기술자/역할 수행자와 맨사람/인간이 악한 통치에 부딪혀서 다투게 된다. 이 다툼에서 맨사람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자전적 행정학]의 입장이다”(2008: 488).

“대통령의 친동생이 빵에 바를 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외무부 장관이 일어서서 가더니 어딘가에서 잼을 갖고 왔다. 잼을 가져오라고 웨이터를 부를 수도 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대통령의 조카 중 한 사람이 일어서서 갖고 올 수도 있었는데, 외무부 장관이 갖고 왔다. 장관이 나랏일을 해야지 잼을 가지러 일어서는 장관이 어디 있느냐고, 만찬 후에 나는 대통령의 친동생에게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니 그 후 이수동씨가 나에게 와서 변명을 했는데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친·인척, 가신, 측근 등이 공식 계층보다 높은 측근 정치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주로 국회의원 공천을 당수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데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막말로 측근들이 공천 장사를 하는 것이다”(2008: 530-531).

“한때 영국의 총리를 지낸 후 나가 살 집이 없어서 새 집을 얻어 나갔던 윌슨이 공직자의 한 예이다. 윌슨의 예는 대통령을 끝내고 새 집을 줄줄이 짓고 나간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2008: 673).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이이기에 공직자의 표본이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가 공직자이지, 이밥과 고깃국을 먹으며 일자리 만든다고 말하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으면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이다”(2008: 679).

“하느님이 햇빛을 만민에게 비추시고 비를 만민에게 내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니 움츠려진다. 그럼에도,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공직자 중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를 엄하게 구별해 이를 심판하고, 참된 공직자를 그지없이 우러러 존경함이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이문영: 2008: 26).

2. 사람·일·방법

2.1 사람·일·방법 범주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3 단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인간계발을 위한 환경조성단계**이며, 둘째는 **과학적 관리**의 단계이며, 세째는 적극적인 **인간계발**의 단계이다. 여기서 인간이란 국민과 공무원을 지칭하는데, 전자는 행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문화환경의 조성자이며 후자는 행정의 담당자이다”(1980: 4).

“사람은 목적인 바 일을 달성하되 되도록 노력을 적게 들이고 또는 동료들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면서 행동하도록 창조된 생물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거의 숙명적으로 능률을 모색하게 마련인지도 모른다. **행동을 최소화**하고, 인간관계의 안정을 모색하는 이 능률을 습득하는 방법과 원칙은... 오래 된 행정습관과 경험이 쌓인 환경에서만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의 향상책이 받아들여진다”(1980: 5).

“우리 나라의 행정조직체 내에서의 행동의 계속성을 단속시키는 유일의 이유는 권한침해에 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합리주의 현상**이 행정에서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의 행정에 대한 극도의 간섭증, 엽관주의,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 대한 권한남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막료로서의 예산기관의 횡포 등에서 볼 수 있다”(1980: 6).

“능률을 발생케하는 원칙에는 물질에서와 같이 과학적 관리의 원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안정 내지는 인간계발문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능률**의 유지 문제가 있다”(1980: 6).

“공동 목표 중 위에 있는 것은 (1) 비참한 현장의 문제해결을 착안할 것 (2) 해결방법이 비폭력적일 것 (3) 사람이 사람을 목적시킬 것 등이라는 것이다. ... 관과 민 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할 위에 있는 지식인은 부당하게 낮고 없는 자 편에 서서(비참한 현장에의 관심 때문에) 비폭력의 길을 가고 그 대가로 물질적 혜택을 받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성숙되어진다는 혜택정도를 받는 사람이 등장케 하는 것이...”(1983: 77)

“70 년대의 무리는 적어도 (1) 사람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정부가 할 일에 대한 잘못된 주장, 그리고 (3)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포함한다. ... 국민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요약하면 사람을 목적시 안하고 수단시하는 일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무리한 업적은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이다. 일을 수행하는 무리한 방법이란 <상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통한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1983: 83)

“사람의 몸으로 치면, 조직이란 해부학적 측면이며 관리는 생리학적 측면이다. 생리작용이 물, 공기, 식품 등이 들어가서 일과 열을 내는 작용을 하듯이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관리도 <사람>과 <돈>을 들여서 <일>을 해내는 것이다. ... ¶... (1) 각 구성 부문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갈 담당자가 각 구성 부문별로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 분권화가 안되며, 엽관주의의 관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 맡은 사람의 예산에 대한 발언권이 존중되지 않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자체가 고정화될 수 없는 상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각 부문별로 맡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즉 어느 논에 물을 댈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까지도 가진 물 대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다. ... (3) 각 부문별로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 담당자의 능력확대, 인화 관계의 향상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 이상 세 가지의 환경 접촉 지대를 이룸지어 **주체성, 효과성, 능률성**으로 이름짓기로 한다”(1983: 187-188).

“전자[국민을 위한 태도]는 압력, 세금, 인력 등을 제공하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며, 이를 활용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즉 국민이 가진 것을 키워서 사용하는 태도이다. 후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태도]의 태도는 압력을 억압으로 누르고, 세금은 국민이 못살 정도로 걷고, 사람을 종같이 부린다는 태도이다. 즉 국민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사용하는 태도이다”(1983: 226)

“... 불만이 해소된다고 곧 만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만족이 충족되었다고 곧 불만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안유지가 안되며, 길에 나가면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먼지로 눈이 바쁠 정도의 상태를 제거하면 불만은 해소되나 그렇다고 곧 자기의 자기실현과 참여를 통하여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자기개인의 기업을 성공시키고 있어서 만족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환경과 기간산업의 미비에서 오는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시책은 첫째는 불만해소를 안시킬 때, 둘째는 만족충족을 고려해야 할 때 불만제거작업만 계속할 경우 노정된다고 본다(1986: 227)”

“단순히 인력과 물자가 많이 드는 비능률도 있지만 조직의 구성원이나 조직과 조직의 의뢰인 사이에 인화가 잘 안돼서 생기는 비능률도 있는데, 후자를, **사회적 비능률 social inefficiency** 이라고 말한다”(1991: 35-36).

“...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물량적 요구에서 보는 능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능률을 능률 자체로 본 점에서 능률의 고급수준을 설명하고 있다”(1991: 40).

“힘이 덜 드는 상태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시간과 사용된 물자가 덜 사용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유한 의미의 능률이다. 능률에는 이 고유의 능률 뿐 아니라,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도 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덜 생기며 화목한 상태를 지칭한다”(2001: 239).

“... 두 가지 조치인 (1) 권한보장작업이 잘 되어 있다든가, (2) 합리성을 추[구]하여 공무원 상호 간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든가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좀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힘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우리가 모색하는 공무원형이란 무엇에나 ‘네, 네’ 하는 사람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더 독립적이며 자신을 갖고 있으며 근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심히 탐색하는 사람이다”(1980: 7).

“행정개혁의 목적으로 다음의 세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적 조치가 행정담당자형성을 도와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 둘째, 행정적 조치가 행정적 효과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의 효과성 달성이란 관료 제도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정부에 해 달라고 바라는 프로그램의 수행을 의미한다. **세제, 행정적 조처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행정적 능률이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1980: 7-8).

“주사를 어른답게 만드는 과정이 세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과정은 ‘방법’을 좋게 하는 일이며, 둘째 과정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일이며, 세째 과정은 일을 하는 공무원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일이다”(1980: 386-387).

“이 셋을 더 줄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람’, ‘일’, ‘방법’에 관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1991: 35).

“A1, 즉 민주사상에서 인간관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인격의 **목적관**이다. 이에 반하여 B1 은 하급자를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하급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인격의 **수단관**이다”(1991: 58).

“이제 3·1 운동, 4·19, 5·18 그리고 6·29 를 꿰뚫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중 5·18 을 광주 의 재판을 통하여 전절에서 검토하였다. 이 네 운동 모두 운동자들의 방법·일·사람에 대한 태도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제일 앞서 있던 운동인 3·1 운동에서의 3·1 독립선언문을 공약 3 장은 바로 이 방법·일·사람에 대한 생각을 각각 보여준다”(1991: 328-329)

“방법에 관한 표현은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자’로 되어 있다. 일에 대한 태도는 일본제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 동포의 고유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거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는 공약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당위를 추궁하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사람임을 선언하는 공약이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이다”(1991: 329).

“그의 <서시> 중 ‘죽는 날까지’ 운운의 개념은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더라도 自我의 존재가 계속한다는 物을 넘어서는 ‘物 자체’에의 그리움을—外形화된 物만이 아니라—표시한 것인데 이는 唯物論을 거절하는 심적인 기반이기도 하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는 압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에 의해 죽어가는 이를 사랑한다는 것이니 이는 극우에 편들지 않음을 나타낸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가 성실한 보통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기를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80: 358; 1991: 318).

“운동주의 정신은 1919 년 3·1 독립선언서 3 대 공약의 정신이기도 하다. 3 대 공약은 거사, 사람, 그리고 행동방식에 관한 태도를 표방한다. 거사는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짐함으로 불쌍한 거래에의 공훈감을 즉 사회 윤리를 보여준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民族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는 것에서 육체의 종식으로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서 오히려 존재하는 인간의 자기희생 즉 인간의 책임과 운명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세번째 공약이 말하는 행동방식은 비폭력과 개인윤리를 강조해 먼저 秩序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1980: 358; 1991: 318-319)

“자산을 유지하되 부채를 줄이는 행동을 예시해 보자. ... 경제활동에서 제 2 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관심처럼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며 비용을 적게 쓰는가의 문제이다. ... 사람이 과거를 돌이켜보아 선을 늘리며 악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경제 활동에서 수입을 늘리며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활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사람이 현재에서 대차대조표 과목과의 조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면에서 성공하고자 함을 뜻한다. 이 방법 면에서의 조정이 끝나면 사람은 ‘일’면에서의 성공을 도모한다.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많게 하는 것이 곧 일이다. 끝으로 사람은 자신이기를 바란다. ... 수입늘리기를 선행, 비용 늘리기를 악행, 그리고 손해를 남에게 패기치는 일로 대입해 놓고 볼 때에 다음과 같은 도덕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며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사람(방법 면)→선을 악보다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일 면)→드디어는 자기가 행한 선행까지도 선행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나의 것을 주어도 그 준 것이 늘 덜 주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사람 면)**이 좀더 좋은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다”(1996: 133-135).

“이렇게 해서 드디어 <논어>에서 언급되는 경험이 다음의 세 경험을 내포해야 한다는 조건이 설명된다. **조건 1: 자기 자신을 안다. 조건 2: 악행을 줄이고 선행을 늘려 나간다. 조건 3: 선행을 한 후 선행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으므로써 자기 자신을 더욱 안다**”(1996: 136).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라는 특정한 조직체안에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다. 일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에 부여된 임무’이다.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협조’이다”(1996: 283).

“‘지배하는 힘’, ‘세 힘’, ‘개인이라는 힘’이 사람에게 해당한다. **효과는 일에, 능률은 방법에 해당한다**”(1996: 284).

“다른 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전인 해방 후 학부 생활에서 최재희 교수로부터 들은 세 가지 표식으로 전개되는 칸트의 도덕법에 대한 설명에서이다. 즉 보편성에 착안한 제 1 표식은 ‘일’에 해당하며, 주체성에 착안한 제 2 표식은 ‘사람’에 해당하며, 보편성과 주체성을 종합한 제 3 표식은 ‘방법’에 해당한다. 제 1 표식인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를 대하면서 한 업무를 맡은 조직의 구성원이 누가 와도 같은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제 2 표식은 ‘네 인격과 모든 남의 인격 중의 인간성을 네가 한갓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이다. 사람이란 수단시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목적시되는 존재일 때에만 사람은 신명을 다해 맡은 일을 한다고 보여진다. 제 3 표식은 조직구성원이 제 1 표식과 제 2 표식을 충족하도록 종합을 하라는 것이니까, 즉 **각자에게 보편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어떤 한 사람의 강압이나 지시가 아니라 구성원원 간의 합의와 협조가 존중되는 자율사회를 말한다.** 나는 내 <행정학> 책에서 행정의 정의를 **‘협조하는 방법’**이라는 말로 함축하여 사용한 바 있다”(1996: 284-285).

“일본의 관동이나 고베 대지진에서 살아 남은 존재의 문제는 물론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지진에서 살아 남아야 할 것을 회구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대에 사는 일본인들이 아마 이래서 기복을 비는 고대 종교에 지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란 언제든 살아남기만을 바랄 수 없는 참존재, 실존을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군국주의 일본제국 치하에서악한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해 목숨을 잃는 시민들이 일본인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목숨을 잃는 자는 악한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소유했을 뿐, 그의 목숨 즉 존재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잃은 셈이 된 것이다. 존재는 참존재인 실존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힘없고 덧없고 허무한 것이다”(1996: 289).

“통치자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런 정권의 ‘일’관이다. **이런 정권은 아랫사람을 눌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을 하며, 교묘한 말을 하며, 약속을 어겨서 일을 한다.** ... 이에 반하여 민주형 행정에서는 국민을 위하여 여당이 스스로 손해를 본다. 약자인 국민의 몫을 요구케 해 이를 받아들이며,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이 된다. 정부는 권력남용을 삼가며, 국민이 신뢰할 존재가 정부이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는 ‘말’을 하는데 성공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2001: 240).

“‘사람’을 목적지 하는 측면은 ‘사람이란 신 앞에서 존재이지, 사제나 교회 앞에서는 존재가 아니다’로 바뀌어진다. ... ‘일’에 관한 세속조직에서의 변화에 해당하는 교회의 개혁으로 ‘사람이 할 일이란 하늘나라의 의(義)를 추구하는 것이지, 면죄부의 구입으로 상징되는 ‘이’(利)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가 제시될 것이다”(2001: 242).

“교회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은 신 앞에서 일생을 회개하며, 이 마음을 미루어 교회에서는 사제를 존경하며 교회 밖에서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신에게 회개는 앞고 다만 사제에게 굴종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의 95 개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2001: 242).

“한 개인의 사람됨을 알려면 첫째,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해볼 만한 의미있는 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 사람은 무엇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를 알아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2001: 244; 1991: 321).

“상황 1에서 예수의 비폭력 저항—비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지는 폭력이나 폭군의 웃는 얼굴과는 거리가 먼 저항—을 본다. ... 상황 1에서 **비폭력이란 저쪽에서 패러디라도 이쪽에서는 말로만 대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말의 형식을 빌린 폭력의 행사가 아님을 상황은 보여준다. 따라서 폭력의 반대어는 말을 계속하는 일이다**”(2001: 246; 1991: 322).

“예수간 삶을 산 방법을 이제 정리해 보자. 우선 그의 방법이 비폭력적이다. ... 비폭력은 이어서 볼 그의 ‘일’관과 ‘사람’관의 전제이기에 비폭력은 모든 덕목들의 시작이 된다. 따라서 그가 삶을 산 고유한 방법은 **첫째 말로 하는 것, 둘째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 이 두가지이다. ...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시시비비, 지식획득 이런 것 등을 근거로 한다. 합의란 약속의 이행, 상대방의 존중, 예의 등을 근거로 한다.** ... 그[요셉]는 그때 그때를 사는 적합한 지식이 있어서 부자집의 집사 노릇과 정부의 양곡 관리인 역할을 잘했고, 부자집 주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서 금전을 축내지 않았고, 유희하는 주인의 부인을 거절했고, 이 주인의 부인에게 손을 안댄 대가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년 동안 옥중생활을 했을 정도로 그의 주인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2001: 260).

“B1에서는 공권력이 자행되며 국민은 통치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지만, A1에서는 헌정질서가 유지되어 국민의 동의와 국민과의 협의로 일이 진행된다. ...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법’은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을 매일매일 닦아서, 이 학문을 갖고서 조직 내에서는 상사를 존중하며 조직 밖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전문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다만 상사에게 굴종하며 조직 밖의 국민들에게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 B2에서는 부국강병과 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창안·기획해서 하는 일이 일의 내용을 이룬다. 이에 비해 A2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익을 신장하는 것이 곧 일**이 되며, 군이 이 일의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있다면 일의 창안 계획자인 국민을 돕는 일이다. ... 왜냐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란 민주·복지국가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 상사에게 상납하는 대가로 ‘이’(利)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B3에서는 정부가 부당하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존재이지만, A3에서는 국민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를 갖는 존재이다. 이 고유의 권리 안에서는 정부가 끝내 자기가 계획한 일만을 고집하며 (B2), **국민의 동의와 협의를 무시하는 경우(B1) 이러한 무도한 정부의 개폐(改廢)를 요구하는 권리까지도 포함된다**”(2001: 283-284).

“미국의 독립선언이 제시하는 모형이란 첫째 국가의 제일차적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둘째 이 기본권보장을 제일차의 기능으로 삼는 정부는 국민의 同意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만 강력하며, 세째 전자의 **두 조건이 충족 안되는 정부는 국민이 언제나 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을 출발시킨 것은 말하자면 人權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1983: 38)

“역사변화의 요청에 수응한 권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권력의 일차적 임무로 삼는다. 둘째로 국민의 동의에 입각한 정부만을 강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세째로 앞의 두 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 해당국민은 그 정부의 改廢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넷째로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경제분배를 한다”(1983: 65).

“순조롭게 民主化를 한 나라는 自由를 구체화할 뿐 아니라 의회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 구체화가 안겨다준 부작용인 貧富의 격차문제를 해소한다”(1983: 38).

“왜냐하면 좋은 방법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의논하여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같이,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먹을 것을 나눠먹지 않으면 상하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일이며, 이 기본권의 신장은 사람의 1차 집단에서의 생활이 선행으로 훈련·교육된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사람관이란 정부가 국민을 목적지 함을 말한다. 따라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정부를 마치 아버지같이 대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사람에게 절하는 나라이지, 사람이 독재자에게 절하는 나라가 아니다”(2001: 300).

“내가 1962년에 쓴 <<행정학>> 첫 절은 행정학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하는데 등장한 변수는 사람, 일, 방법의 세가지이다. 공무원이나 관료제도가(이상 사람) 현대국가에 부과된 기능을 수행하되(이상 일) 이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상 방법) 탐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라는 것이었다”(2011: 67)

2.2 범주의 발전순서

“한마디로 말해서 ‘방법이란 곧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을 말한다는 것이다. 방법의 존재 근거란 사람의 힘을 덜 들여서 일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들이는 힘에는 우선 사람이 물자를 들이대는 힘들이가 있다. ... 그러나 행정에서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조직에서 협동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인데, 사람과 사람간의 협동이 상호 간에 마찰이 덜 있으면서 협동되면 능률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능률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형성되는 사회라는 말을 사용해 표현하여 사회적 능률이라고 칭한다”(1996: 306).

“(1) 조직구성원의 행동이 공개적일수록 능률이 높아진다. ... ¶(2) 동료간에 以友輔仁, 즉 仁으로 돕는 것이 벗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3) ‘가까운 곳의 사람이 기뻐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오게 해야 한다. ... (4) 자신을 책하기를 후하게 한다.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적어진다.**’ ... ¶(5) 끝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를 봐서 일을 한다. ... **이 관계자간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일하는 ‘방법’의 精華**라고 나는 생각한다. 합의를 보는 일이야말로 각자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상황, 즉 상호주관성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한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1996: 307-309)

“<논어>에서 말하는 일이란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말은 이른바 일이라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 ¶(1) 仁을 행하는 것이 일이다. ... (2) 일은 國政이어야지 사사로온 집안일이어서는 안된다. ... (3) 속히 하려고 하며, 小利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 (4) 賢者和 仁者를 사귀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 공자가 ‘工人이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연장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 이 고을에 살면 대부 중에서 賢者를 섬기며, 선비 중에서 仁者를 벗삼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5) 배우는 것이 곧 일함이다” (1996: 310-312).

“(1)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와는 무관한 존재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 ¶ ... (2) 사람은 귀신에게 바르게 관계를 갖는 존재이다. ‘그가 섬겨야 할 귀신(대상)이 아닌데도 그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義를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은 용기 없음이다’ ... (3) 사람은 그 자체로서 즐거워하는 존재이다. ... ¶(4) 사람은 큰 것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 ” (1996: 321-324).

“仁義禮智 중 ‘방법’에 해당하는 가치가 智와 禮이며, ‘일’에 해당하는 가치가 仁이며, ‘사람’에 해당하는 가치가 義이다” (1996: 325, 403).

“**‘방법에 해당하는 智禮를 풀어서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림이 곧 智가 되며, 사양함이 곧 禮가 된다. 서양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관용성(tolerance)이나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에 해당하는 것이 禮이다**” (1996: 403)

“이 취직하는 곳에서의 진진순서는 1 차 집단에서 본 순서와는 반대인 사람→일→방법 같이 보인다. 2 차 집단은 그 조직이 분업화되는데, 이 분업구도에서 **우선 일맡은 사람은 일을 해낼 만한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일을 하기에 알맞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야 한다.** ... 거듭 말해서 분업이 안되면 조직이 없는 것인데, 분업된 자리에 들어가 일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따라서 조직이 없는 것이나 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 차 집단의 세계에서는 분업구도에 들어가 일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급선무이다” (2001: 101).

“나는 이웃에 대한 친절을 고려하는 **사회적 능률**을 내 생애의 후기에 갖기 시작했다” (2001: 104).

“최후로 변해야 할 인간사회에서의 모습은 ‘사람’ 자체이다. 관(官)이 주도권을 잡는 통치구도에서는 관이 민(民)을 한낱 관의 통치수단으로 보며, 자기 스스로의 크기를 팽창히 비대화하게 그린다. 이에 비하면 민이 주도권을 잡는 통치구도에서는 민이나 관이 민중에게 보잘 것없는 사람까지도 철학자 칸트의 말과 같이 목적시하며, 민이 관에 들어가서는 자기희생을 하며 봉사자의 위치를 지킨다” (2001: 109).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갖춰야 하는 **첫째가 바로 일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미국에서 터득했다.** ‘방법’ 다음은 ‘일’, ‘일’ 다음에는 일을 해낼 제대로 된 ‘사람’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내 행정학을 꿰뚫는 사고이다. ... 첫째, 일을 해낼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료 제도를, 둘째, 할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 국가의 기능을, 그리고 셋째, 일할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조 구도를 두었다” (2008: 133).

“**‘사람, 일, 방법을 준비하기위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덕목을 구비해야 하는가를 따졌다. 우리 선인들이 내세웠던 신인의예지(信仁義禮智)라는 덕목을 사람, 일, 방법에 맞추어서 설명했다. 사람에게 의(義), 일에 인(仁), 방법에 신지예(信禮智)가 부합하다고 말했다**” (2008: 143).

“돌이켜보니 방법, 일, 사람에 관한 사고의 전환은 더 일찍 있었다. 어린 시절 배재학당에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잘하되,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의 틀 안에서 하자고 한 결심은 ‘일’에 관련된 사고였고, 종로서 형사 앞에서 의연하셨던 내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교회에서 동생들 때린 것을 뉘우친 것이 내 ‘방법’의 시작이었다” (2008: 388).

“내가 생각하는 새 문명이란 이 사람, 일, 방법을 맴돌 것이다. 맨사람이 공직자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새 문명이며, 일하는 방법은 고전 연구인 미래를 나는 꿈꿀 것이다. ... 이 책의 집필이 끝날 무렵인 2007년 초이면 내가 세번째로 옥고를 치른 지 25년이 되는데, 이렇게 25년이 흐른 뒤건만 동지와 연대가 안될 것이고, 주권자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천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동지들인 세 의장 중 한 사람인 윤보선은 전두환 쪽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통일·선민중·선생명·선정치·선반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의 구실 하에 ‘선잇속’으로 갈라졌으며, 올바르게 않은 정치가 주권자보다 앞서는 세상이 민주화되었다는 세상일 것이다” (2008: 389).

“즉 예수를 <창세기> 5 대 설화가 부각한 악한 통치자의 대안으로 설명하여 선자자들의 전통 속에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가 법정에서 한 행위를 분석했다. 거기서 비폭력·개인윤리라는, 인간이 선택하고 가야 할 예수의 방법관(관), 무엇을 의미있는 일로 보는가 하는 예수의 일관, 예수가 궁극적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사람관을 찾아냈다” (2008: 560).

3. 초월윤리

3.1 사중복음과 인의예지: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

“기독교 교회가 세속 사회에서 그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사회집단을 형성케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떠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1) 우선 열거한 의인의 성격은 뭔가를 갖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 (2) 비폭력이 다른 하나의 성격이다. 폭력이 얼마나 싫길래 지금도 교회예배시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폭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했길래 아벨을 죽인 카인을 아무도 못죽이게 카인에게 꼬리표를 하나님이 주신다. ... (3) 의인은 비기득권자 계통에게서 나온다.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야곱이다. 아벨이 죽은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의 손에서 살아남는 일이다. ... (4) 개인윤리면에서 나무랄데가 없어야 의인이다. 살아남기는 한 야곱의 모자람 말하자면 개인선에서 업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단번에 완성품을 요구하시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이다. ... (5) 사회윤리를 지녀야 한다. 개인적인 선이 선의 전부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 점을 보여준 이는 바로 요셉이다. ... 따지고 보면 요셉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만 충신했던 것이다. 이 요셉의 한계를 넓혀준 의인은 역시 비기득권자 계통에서 나온 모세다. 사회윤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한다. ... (6) 의인이라 **代贖者**[대속자]를 말한다. 훌륭한 문화란 그 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족을 대신해 죽은 이들이 많은 나라이다. (7)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이가 의인이다. 이 **예**는 말썽꾸러기를 죽였고 그 무덤 문은 큰 바위로 막아 놓았다고 악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이가 예수다. 죽음과 삶, 패배와 승리, 작은 것과 큰 것,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것을 한몸에 아울러 가진 이가 의인이다. ... 의인의 성격과 같은 것... (1)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는 저술한기특권의 포기/비기득권자 계통일 것/사회윤리 등을 구체화한 사람이다. (2) 9 절은 서로 남을 탓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는 전술한 비폭력의 성격과 동일하다. 서로 원망하는 것을 주무기로 하는 공산주의가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10 절은 고난을 참고 이겨낸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 (4) 11 절은 읍과 같이 끈기있게 참으라고 말한다. 읍은 전술한 개인선의 실행자이다”(1983: 284-287)

“자신이 경험한 바를 언제나 성서에 비취보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1986: 339; 『世界』2 월호).

“권력의 남용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러운 세상에서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남용하에서 의미있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평화를 만든다. 악한 세상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는 약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 이제 밝혀질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덕목은 세 가지의 단계로 진전하는 것 같이 보인다. 첫째 단계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에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약자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권력과의 대응책으로 생각하는 확신의 형성이다. 둘째 단계는 약자가 발전시키는 것은 상대방 강자는 손을 주먹으로 사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만 약자는 손이 손쉽게 주먹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손이 손으로만 있게 하는 일이다. 세째 단계는 개인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용으로 한 이른바 개인윤리의 성숙단계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사회윤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악한 통치자와 불가피한 갈등을 전제로 한다. 약자가 갖추는 최종 덕목은 자기희생이다”(1980: 365).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의 네 가지가 능력의 내용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의 발전순위도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이기도 하다.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의 능력이 비폭력이며 최대의 능력이 자기희생이다”(1980: 373).

“능력이 발현되는 장소는 통치, 행정기구, 야당·반체제운동 그리 국민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최소한 국민 차원에서 능력발휘만 되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나으며, 능력발휘가 가장 되기가 어려운 장소는 통치·행정구조이다”(1980: 393).

“첼들러와 플레노의 <행정학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을 나의 4 단계 초월과정별로 연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행정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우선 통치자가 통치악에서 벗어났다. 통치악을 이 책 곳곳에서 <창세기>의 5 대 설화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 점을 말한다. 하지만 <자전적 행정학> 12 장에서 각종 공직자를 사례연구한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공직자의 악에서 못벗어남을 보여준다. 둘째, 대통령 집무실이나 목사실에 갇혀서 못보고 있던 통치악으로부터 해방된 통치자가 인간 일반의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예수의 3 대 유혹을 지금 내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잘못을 이해하는 틀로 이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3 대 유혹을 함석헌의 계례를 위한 대안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4 단계 초월은 위에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발전된 개념들이다”(2008: 485).

“이 비폭력에서 자기희생에 이르는 덕목 등을 행정부라는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공무원의 덕목으로 재구현하고자 시도함이 이 강의의 내용이다”(1991: 27).

“내 강의는 이런 취지에서 성서에 대한 사회 내지는 정치신학적 관찰을 내던져본다. 예를 들어 성장이라는 개념을 자연에서의 나무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인격의 성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무는 봄에 싹이 나며,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겨울에는 성장을 멈춘다. 사람의 인격발전도 전술한 바와 같이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의 형태를 취하면서 성숙한다”(이문영 1991: 32).

“이 4 단계의 진전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덕목이 건강하거나 병든 몸이거나 몸이 神癡의 대상이라는 신앙, 개인윤리적 기본동작이 잘 돼 있는 청교도적 생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약자에의 봉사, 그리고 영원한 신과의 귀일을 바라는 거듭나는 重生 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얘기를 언젠가 있었던 내 교단의 청년집회에서 말한 적이 있다. 즉 성결교회가 내세우는 이른바 四重福音을 자연과 세속에 맞추어 이렇게 풀이한 것이다”(1991: 32-33).

“이렇게 다시 하되 가장 보잘것 없는 작은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을 나는 뜻이 있게 생각한다.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따진다. ... 이 仁義禮智 思想은 다음 대비에서 보듯, 이 강의가 내세우는 네 개의 덕목 중 세 덕목을 상징한다. 仁—社會倫理(타인을 고려하기 때문) 義—自己犧牲(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 禮—個人倫理(합의를 준수하려면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 智—個人倫理(개인윤리의 시초덕목은 지식의 습득이기 때문)”(1991: 348).

“性的 내용인 仁義禮智가 제 9장에서 발전순위로써 智禮仁義로 바뀌는데, 그것은 智禮가 방법에, 仁이 일에, 義가 사람에게 해당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智禮仁義란 말을 대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내가 속한 기독교단에는 重生, 聖潔, 神癒, 再臨 등의 四重福音이 있는데, 나는 그 순서를 神癒, 聖潔, 再臨, 重生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나는 몸에 술, 담배를 안하는 등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을 神癒에, 개인윤리를 聖潔에, 사회윤리—가장 작은 자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온 사람에게 가장 작은 일을 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를 再臨에, 자기희생에 해당하는 것을 重生에 각각 분류한다”(1996: 302-303).

“이 네 개 덕목을 구체화 한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 현실교회는 내가 다섯 살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을 다니고 있는 한 성결교회의 사중복음(四重福音)이다.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은 중생(重生)·성결(聖潔)·신유(神癒)·재림(再臨)을 말한다. 나의 한 교회에서의 오랜 신자생활이 나로 하여금 사중복음을 단순히 심령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면에서 적용할 것을 착안케 한 것이다. 이 점에서 내가 설정한 네 개 덕목은 사중복음을 말하는 한 교회의 외자에 오랜 세월을 앓아 있었던 소산이다. 나의 네 개 덕목 중 비폭력은 교회에서 신유로 바뀐다. 우선 자기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자기 몸에 폭력을 가하지 않음이 건강을 유지하는 시작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술·담배를 금함은 교인들의 몸에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 개 덕목 중 개인윤리는 교회에서 성결한 개인생활로 바뀐다. 성결한 사람은 자신에게 궁지를 가지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며, 말을 듣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태오> 25장에서 보듯, 가장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를 돕는 사회윤리가 곧 교회에서는 재림으로 바뀐다. 끝으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이는 교회의 덕목으로는 중생을 얻게 된다”(2001: 254).

“이 네 가지 대안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내 원천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인 신유·성결·재림·중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폭력에 해당하는 성결교회의 교리는 하느님이 병을 고친다는 신유이다. 안식일에는 몸을 쉬고, 담배와 술을 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은 몸에 폭력을 가하지 않는 일이다. ... 그 다음은 개인윤리인데, 사중복음 중 하나인 성결(聖潔)이 여기에 해당한다. 돈샘이 정확하고 여자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개인윤리인데, 예컨대 구약성서의 요셉같은 사람이 개인윤리를 지킨 사람이다. 나는 내 교회의 성결이라는 가르침 때문에도 미국의 청교도에게 호감을 가졌다. 사회윤리가 세번째 덕목이다. 사회 내 약자에 대한 배려인 사회윤리에 해당하는 성결교회의 복음은 재림(再臨)이다. 여기서 재림이란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는 뜻인데, ... 끝으로 자기희생에 해당하는 성결교회의 복음은 중생(重生)이다. 스스로 자기를 버려야 거듭난다는 뜻이다”(2008: 269-270).

“나는 무교동 교회의 설립자 두 분이 비폭력·개인윤리·사회윤리·자기희생이라는 네 가지 덕목을 적절한 기독교 어휘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내 짐작으로는 비폭력에 해당하는 어휘가 신유이며, 개인윤리에 해당하는 어휘가 성결, 사회윤리에 해당하는 어휘는 재림, 자기희생에 해당하는 어휘는 중생이다”(2008: 101-102). “무교동 교회의 설립자였던 두 분은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이라는 네 가지 덕목을 적절한 기독교 어휘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이처럼 다행스럽게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을 성서적으로 해석하는 교회의 교인이었다”(2008: 270-271).

“신유는 사람이 하느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의 형식으로) 말해서 병이 낫는 행위다. 그런데 하느님께 말함이란 사람이 그가 의지했던 자기 자신—내 경우 동생들을 때린 행위—과 물질—내 경우 군밤을 화영에게 한 개도 안 준 행위—를 포기하는 비폭력과 하느님이 부르시는 자비스러운 인력이 합해지는 지점에서 생기는 행위이기에, 신유는 비폭력을 전제로 한 행위이다. 기독교인이 섭생·절제하고 술·담배를 금하는 것 자체가 비폭력 행위의 하나이다”(2008: 102).

“제 3 부에 있는 4 개 장은 다 ‘방법’→‘일’→‘사람’의 흐름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검토한다. 즉 제 3 부에서는 智禮仁義가 비폭력(智禮仁義 이전의 덕목), 개인윤리(智禮에 해당), 사회윤리(仁에 해당), 자기희생(義에 해당)으로 개명되며, 이 비폭력에서 자기희생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조직, 정책, 재무행정, 인사행정 면에서 검토된다”(1996: 303).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의 네 덕목은 전장에서의 악 네 개에 대한 反이다. 방법, 일, 사람의 세 범주에서 볼 때에 비폭력과 개인윤리는 방법에, 사회윤리는 일에, 그리고 자기희생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덕목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 방법, 일, 사람의 발전도 제일 먼저 방법이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발전되는 것이 사람이다. 사회윤리가 곧 일의 내용을 정한다는 관찰은 제 2 장에서 행정의 定義를 위크샷했을 때에 이미 밝힌 바가 있다. 한편 자신을 버리는 이가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는 교훈이 자기희생의 교훈이다. 자기희생 곧 자신을 버리는 일은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다”(1991: 110).

“폭력과 비폭력의 중간가치는 합리성 rationality 이다. 때리는 것인 폭력의 반대는 때를 맞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맞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때리는 것이 제거가 됐다면 남은 것은 말하는 것만 남은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말은 남에게 하는 것이며 남이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전문지식을 포함한 이치를 갖고서 말을 해야 한다”(1991: 118).

“정치경쟁자를 죽이는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되 철저하게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은 당위이며 사회윤리이다. 그러나 일단 정치경쟁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포악이 제거된다면 약자만을 편들기보다는 해당사회 일반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다른 하나의 중간가치로 사회적 관습의 존중을 내세운다. 끝으로 정치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도 전지효과적 지적 세우기에 급급하다. 이 경우 자기확대나 비대화가 아니라 자기희생이 당위가 된다. 이 경우에도 정권의 정당성이 일단 확보된 상황에 이르면 굳이 이해관계의 추궁[구]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중간가치는 각종 이해관계의 추궁[구]을 긍정시키는 가치가 될 것이며 이렇게 표출된 각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을 공공이익 public interests 의 입장에서 행하게 된다”(1991: 119-120).

“지예인의에서 지예가 방법에, 인이 일에, 그리고 의가 사람에게 대하여 대안 담지자가 갖는 덕목 등이다. 방법에 해당하는 지예를 풀어서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림이 곧 지가 되며, 사양함이 곧 예가 된다”(1996: 403)

“그런데 지예에 앞서서, 즉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의 덕목에 앞서서 존재해야 할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이를 비폭력이라고 지칭한다”(1996: 403-404).

“정부의 경우를 볼 때에 예라는 고급기법이 도입되기 전에, 예를 들면 우왕과 같이 홍수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에서 지를 사용하기 전에 권력남용을 함부로 못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도 대인 관계를 고려하며 그 전에 공부라도 하기 전에, 즉 예와 이에 앞서는 지 이전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 나는 이 덕목을 비자가 든—왜냐 하면 무엇을 안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선다고 보아서—비폭력이라고 지칭한다”(1996: 404).

“개인윤리의 성립 조건에는 (1) 지능의 획득과, (2) 사람 사이에서—정부의 경우 조직 내 구성원 간이나 조직 내 구성원과 외부의 국민 간에—합의를 모색해서 이 합의된 것을 준수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거듭 말해서 전자가 지이며, 후자가 예이다. ... 따라서 폭력 행사가 멈춰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말’이다. 실로 폭력의 반대되는 개념은 ‘말’하는 것이다.”(1996: 404).

“인이란 불쌍한 자를 공휼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을 그 단서로 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인의 현대적 개념은 곧 사회윤리이다. 그리고 사회윤리는 개인윤리가 발전된 다음에 발전되는 덕목이다. 개인으로서 무능하며 개인 간에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약자를 돕는다’라고 운운하는 것의 허위를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다. 그러나 개인윤리가 갖추어졌다고 사회윤리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1996: 405).

“한편 사회윤리인 인은 곧 정부가 하는 ‘일’의 기본 정신이다.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함이 ‘일’이지 가시적 물량을 눈앞에 만들어냄이 ‘일’이 아닌 것은 이미 검토한 바 있다”(1996: 405).

“끝으로 의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 ... 정부권력의 비대화가 일의 담당자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듯 사람의 진가는 물질이나 육체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비대화의 반대개념이 ‘자기희생’이다”(1996: 405)

“비폭력·개인윤리·사회윤리·자기희생의 네 덕목을 실현하는 제도가 민주국가에서의 의회이다. ... 仁과 義를, 폭력이 아닌 대화로써—대화 속에서 개인윤리의 특징인 智의 사용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禮가 구체화된다—입법을 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의회에서 역시 따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의회 의원들은 한편으로는 늘 비대만 해가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이런 부당한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인 仁을 구조적으로 반영한다. 다른 한편 사람이란 그의 외형—예를 들면 초라한 빈자의 외형, 초췌한 노인의 외형, 혹은 교도소 거울에 비친 머리를 깎고 퍼런 죄수복을 입은 내 모습 등—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을 수단시해 무산계급의 무자비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조적 좌파운동을 동조하는 입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유지를 위하여 인간을 수단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권력에서의 자기희생인 義를 뜻한다”(1996: 405-406).

“어느 나라나 국가정책을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영원의 시제에 맞추어 ‘민족형성→민주주의→평등사상→평화’의 시대정신 흐름에 따라 변천시키고 있다. ... 나는 이 국가정책의 변수로서의 시대정신이 곧 제 4장에서 설명될 약자의 대응방법인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 등 네 개의 초월현상과 맥락을 같이 함을 말하고자 한다”(2001: 86-87)

“강한 약자와 이에 대처하는 약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약한 강자는 폭력을 사용하지만, 약자는 비폭력을 택한다. 약자는 어차피 약해서 자기보다 강한 강자에게 쓸 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우선 강자의 ‘방법’관에 대한 약자의 대응인데, 강자는 위장을 하지만 약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세우며, 강자는 교묘한 말을 하지만 약자는 바른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강자는 약자와의 약속을 어기지만 약자는 사람과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상의 세 개 덕목(德目)은 개인윤리적 덕목이다. 강자의 ‘일’관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만, 약자는 약자의 몫과 주권을 요구한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전체 사회에서 약자의 몫과 주권을 요구하는 이 약자의 덕목은 사회윤리이다. 강자의 ‘사람’관은 자기만을 비대케 해 도리어 중국에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데 있지만, 약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 드디어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데 있다”(2001: 148).

“<이습우화>에 보이는 약자의 대응방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자는 약한 통치자가 걷는 반대의 길을 걷는다. 둘째, 폭력을 쓰는 강자의 방법은 아무 방법이나 닦치는 대로 효과적인 것을 택해서 사용하지만, 약자의 방법은 발전의 순위가 위 표에 있는 번호 순서를 따른다.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데는 거의 순서가 없지만, 건설하는 데는 순서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 ... 약자는 주먹을 쓸 것을 포기한다. 비폭력이 이 덕목의 명칭이다. 비폭력이 갖춰진 다음에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주먹을 무엇인가를 만드는 손으로 바꾸며, 과거에 다른 사람을 때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덕의 명칭은 개인윤리이다. 개인윤리 다음에 발전되는 덕목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회윤리이다. 최종적으로 발전되는 덕목을 자기를 기쁘게 희생해 다른 사람 모두를 살리는 자기희생이다. 네째, 비폭력이라는 덕목이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 등의 전체가 된다. 다섯째 사회윤리와 자기희생, 이 두 덕목은 <이습우화>에 거의 없거나 미약한 것들이다”(2001: 148-149).

“대응책에서 서로 원망도 말라 하니까 비폭력을 방법으로 택하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읍을 개인윤리 면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는 해석한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곧 사회윤리가 실천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5 장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자가 곧 주님을 영접한 이로 돼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선지자는 기득권을 가진 왕과는 달리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발언하는 이이기 때문에 이를 자기희생의 범주에 분류한다”(1991: 115).

“3 대 공약은 행동방식, 거사, 사람에 관한 입장을 표방한다. 공약이 말하는 행동방식은 비폭력과 개인윤리를 강조해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거사는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짐함으로 불쌍한 거레에의 공휼함, 즉 사회윤리를 보여준다. 공약 중 하나는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는 것에서 육체의 종식으로 사람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서 오히려 계속 존재하는 인간의 자기희생, 즉 인간의 책임과 운명이 존재함을 예시한다”(2001: 312).

“먼저 비폭력에 관한 것인데 위 9 절에 의하면 기업주로부터 온갖 시달림을 받은 노동자라도 기업주를 탓하는 것조차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서로 남을 탓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니, 노동자는 노동운동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기업주를 화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위 11 절이 말하는 개인윤리의 내용은 말로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기업주와 단체협약

석상에서 말하며, 말로 해서 얻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마테오> 25 장에 의하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 즉 사회윤리를 실천한 자가 예수를 맞이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체여야지 기업주나 외부 정치세력의 단체여서는 안된다. 끝으로 자기희생을 말하는 10 절은 예언자~~를~~ 자기희생의 실천자로 말한다. 노동자는 노사협의를 해야지 다른 일, 예를 들어 계급투쟁을 해서 득을 보는 일같은 것을 안한다”(2001: 347-348).

“야당은 선거라는 비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당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이 야당의 정의 안에 국민의 덕목인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이 자연적으로 내포되고 있다. 무력이 아닌 선거를 통한 정권인수시기에 비폭력이 이 안에 있다. 당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단결은 구성원간의 합의가 모색되었다는 뜻이다. 구성원 간의 합의란 조직 내 인간관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인간관계의 향상은 그 전 단계로서 조직에서 과학적 관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 향상은 합하여 개인윤리 덕목이다. ... 국민이 만든 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정당, 특히 야당의 사회윤리성을 요청하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국민의 밑바닥 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사회윤리성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집권한 정당은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력남용을 억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희생의 덕목이 요청된다”(2001: 365).

노동운동의 원칙 (2008: 243-244). “비폭력: 부당노동행위를 금할 것, 개인윤리: 단체협약을 지킬 것, 사회윤리: 노동조합은조합원의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나 외부 단체의 지시를 받지 않을 것, 자기희생: 노동조합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계급투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순수한 노동쟁의를 목적으로 할 것”(2008: 243).

“나는 악은 민(民)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정권에서 나오며, 이 악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악과 대안의 관계를 나는 이미 노동문제연구소장 때 <요고보서> 5 장을 통하여 본 바 있다. 문제 해결의 대안인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이라는 네 가지 덕목을 <논어>와 <맹자>도 말하고 있음을 생각했다”(2008: 268).

3.2 인내와 기다림

“(7) 하나 더, 장승의 특징은 참는데 있다. 참는다는 것은 포악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갖출 덕목의 모두이며 비폭력 문화의 정상을 말한다. 장승은 비바람을 맞으며 집도 없이 서 있다. 장승의 참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장승의 소재가 쉽게 사그러지는 재료인 나무인데에 있다. 나무가 아닌 돌이나 쇠로 만든 것과 비바람 사이에는 참는 것으로 이어지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같이 쉽게 소멸해 버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참을 때에 그 참음이 덕으로 정신화한다”(1980: 384).

“사실상 지성인의 특성은 끈질긴 참음에 있다고 본다. 이 글이 제시하는 참음이란 추방된 아픔을 참는 참음, 체제 내에서 이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참음, 체제 내에서 나온 이견과 같은 말을 하면서 참는 참음,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해보는 예를 들어 낮은 이들을 존경하며 오히려 낮은 이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참음, 그리고 건설적이며 성숙한 지성을 형성해 인물과 정책과 사회집단을 만들어 내 나가는 참음 이런 참음이다. 나는 이런 의미의 참음의 능력이 우리 겨레에게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1983: 72)

“이렇게 예수의 행동의 기초는 불쌍한 사람과 같이 있는 뜨거운 감정이다”(1983: 113)

“그런데 이것을 띄어별 쪼이는 광야에서 물도 없어 죽겠으니 너 모세는 물이나 좀 만들어 내라는 정도의 저의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민중이었던 것이다. 이끌고 나갈 민중이 이렇게 못났는데도 못났으니까 나 지도자는 막나간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런 민중을 긍휼히 여기며 교육시킨—율법을 통해서—것이다. 끝으로 고통을 지도자가 참는 능력을 들어야 한다. 고통을 참도 의로운 지도자가 창피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참는 이가 예수다. 끝없는 고통을 끝없이 참는 것이 왜 현실참여를 하는 지도자의 능력이 될까. 이는 현실을 지배하는 기득권의 부당행사가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 죽임으로 더욱 굳어질 정도로 횡행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멧집이 나쁜 이가 췌피언 되기는 글렀다는 것이다. 모진 고난을 참으며 기다린 자 외에는 새 날을 맞이할 수는 없어서이다”(1983: 276)

“참는다는 것은 포악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갖출 덕목의 모두이며 비폭력과 동의어이다. 장승은 비바람을 맞으며 집도 없이 서 있다. 장승의 참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장승의 소재가 쉽게 사그러지는 재료인 나무인데에 있다. 나무가 아닌 돌이나 쇠로 만든 것과 비바람 사이에는 참는 것으로 이어지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같이 쉽게 소멸해 버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참을 때에 그 참음이 덕으로 정신화한다”(1986: 336-337; 고대신문 1985. 5).

“그 정도의 회개를 가지고도 의미있는 변화의 기점으로 보시고 이름을 고쳐까지 준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현실적 이상주의자다”(1983: 115)

“운동이란 옳은 말만 하고 곧 필박을 받아 마저 죽는 것이 아니다. 즉 비결 5(전도)와 6(십자가)만 사용하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운동이란 1, 2, 3, 4, 5 가 갖추어질 때까지 6, 즉 십자가를 뚫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운동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이 자리잡을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냥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이상주의 같은 것이 운동의 대정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6 을 거부하는 1, 2, 3, 4, 5 는 소용이 없다. 6 즉 십자가가 없으면 진전 즉 새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1986: 138).

“그러나 참는 자는 마지막을 잘 참아야 한다. 평화를 위한 조짐이 더 많이 보일수록 철저하게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된 평화 원리의 실천은, 그러나 꼭 한가지의 전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이 전제란 철저하고 엄격한 현실이해가 그것이다. 평화의 반대가 되는 폭력에 기반을 둔 경제 문화체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평화의 실천도가 높을 것이다. 평화실천이 없는 현실인식은 이론의 제시를 위한 이론 제시라는 하나의 인가주의에 빠지게 된다. 현실인식이 없는 평화실천은 그런가 하면 패배주의를 만들게 한다. 이 두가지를 다 구비한 자가 참으로 원칙론자인 ‘레디칼’이다”(1986: 298; 교회와 세계 85).

“위에 적은 세 가지 즉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능, 선거에서 여야 간에 균형을 유지케 하는 마음, 그리고 밑바닥에서 자기희생을 말한 인내, 이런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것은 고난의 승화로서의 수용이다. 이는 통치자가 원색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하에서도 국민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아닌 비폭력으로 대응함이다. 이를 위하여 사람이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머리이며

그다음이 **마음**이며 그리고 그 다음은 포악한 것과 포악한 것을 고쳐나갈 것을, 심지어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이다”(1986: 335; 고대신문 1985. 5)

“가난한 집 어머니가 별이를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과 아버지를 무능케 한 세상의 잘못까지도 다 혼자 짊어지고 고생살이를 이어가듯 **우리 국민들은 포악의 잘못까지도 다 혼자서 걸머지고 밑바닥에서 참으며 견디어 온 것이다**”(1986: 337; 고대신문 1985. 5).

“너무 많이 자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순은 새순이 붙어 있는 몸체의 신진대사를 따라야 하지** 체제 외로 뛰어나가려 해도 안된다. 이 모든 **절제가 무기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힘이며 성장하는 힘이며 폭력보다 강한 힘이다**”(1991: 19).

“비폭력: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9) 개인윤리: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휟히 여기는 자시니라. (11) 사회윤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降臨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 8) 자기희생: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先知者들의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을 삼으라. (10)”(1991: 114).

“저는 이 의사의 말에서 병을 참아야 할 두가지 취지를 간주려 본다. 하나는 아픈 것을 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에 대한 새 <건제조직>의 생성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어찌 육신의 몸 낫기만을 염려하겠는가. 우리의 마음의 병 낫기도 육신의 병 낫기와 같은 데가 있다. 1. 우선 참을 것은 아픈 것,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관절염 정도의 아픔을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아야 할 세상은 그냥 악한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악한 세상이다. ... 상황이 이쯤되면 사회구성원들은 노력을 해봤자 성공을 보장하는 규칙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활에의 의욕을 잃게 된다. ... ¶... 2. 둘째로 참을 것은 아픈 것만이 아니라 병이 나아가는 것을 참아야 한다. 이 두번째의 참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시달림을 받을 자가 최소한 보호를 받아 나갈 구조가 생성—마치 병에 대한 <새 건제조직>의 생성을 기다리듯—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가장 나쁜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좀더 밝으며 긍정적인 참음을 우리는 참아야 한다. 따라서 참음이란 우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참음이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룩하려는 형제나 동지들끼리 서로 원망해서는 안된다**. ... 상대방이 **운동을 좌절시키는 비결**도 이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전술에 있다. 못한 운동가의 특징은 대의를 안보고 중얼거리는 일이다. 또한 이 긍정적 참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려서 참는 것이어야 한다”(1983: 254-255)

“나라의 병이 치유되어가는 <전망>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현실적으로 물질의 분배를 바라는 **래디칼**이 지배하려고 과격하게 시도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경우의 전형적 래디칼의 예는 공산주의자이다. 한편 교회는 악한 정치와 결탁을 하며 이를 견제하기는 커녕 이를 오히려 축복해주는 역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1983: 257)

“1. 교회가 부당한 기득권 행사자편에 안서야 한다. ... 2. 교회는 교회와 교인들의 선 능력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 3. 교회는 특히 정적을 보복하지 않을 것을 배우며 가르쳐야 한다. 4. 의식화 안된 못한 민중일지라도 교회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 ¶5. 끝으로 예수 자신 때문에 생겨진 전통인데 우리는 부당한 기득권자에게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당해서 죽은 분을 흠모해야 한다”(1983: 258-259)

“그 이유로 의사는 ‘관절염이라 해도 무릎 안에 기껏 든 것은 나쁜 고름이며 이 나쁜 고름은 밖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물론 나쁜 고름이 나올 때까지 환자는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의사의 말에서 **병을 참아야 할 두가지 취지를 간주려 본다**. ¶ 하나는 아픈 것을 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에 대한 **‘새 건제 조직’같은 것의 생성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어찌 육신의 몸 낫기만을 염려하겠는가? 신의 피조물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진통을 겪는 존재이다. ... (1) 우선 참을 것은 아픈 것,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예를 들면 관절염의 아픔을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아야 할 세상은 그냥 악한 세상이 아니라 구세력이 통치하는 가장 악한 세상이다. ... ¶... (2) **둘째로 참을 것은 아픈 것만이 아니라 병이 나아가는 것을 참아야 한다**. 이 두번째의 참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시달림을 받을 자가 최소한 보호를 받아 나갈 구조가 생성—마치 병에 대한 ‘새 건제 조직’의 생성을 기다리듯—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가장 나쁜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좀더 밝으며 긍정적인 참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참음이란 우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1996: 661-664).

“악한 통치자가 피치자를 파괴하며 드디어는 자신도 파괴하고 마는 것과 악한 ¶ 통치자 밑에서 약자가 적절한 대응책을 사용해 악한 통치를 방지해 나가서 자신과 적을 공동으로 살려내는 것과를 비교할 때, 전자는 후자보다 저지르기도 쉽고 저지르는 시간도 짧게 걸린다. 이에 반하여 **약자는 악한 통치를 그때그때 견제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랜 세월을 끈질기게 참아야 한다**”(2001: 203-204).

“(2) 개인윤리. 우리는 **끈기있게 끝까지 견디어 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욕이 **끈기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 (3) 사회윤리.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낱 때까지 **끈기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2001: 347).

“부자의 죄를 극복하는 **노동자의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忍耐)하는 것이다**. 부자가 하는 것을 노동자가 **참아야** 하는 것이 인내해야 할 하나요, 참되 ¶ 비폭력을 시작으로 해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자기희생의 덕목까지도 갖춰나가야 하는 긴 여정의 인내가 바로 인내해야 할 다른 하나이다. **인내의 긴 여정은 저쪽 부자는 폭력을 쓰는데 이쪽 노동자는 서로 남을 탓하지도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 불평이 있어 중얼거리기라도 하면 문밖에서 대기 중인 심판자에게 준엄한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해 노동자는 근신해야 한다**. 이 비폭력을 전제로 해 욕과 같은 사람으로 인내해야 한다. ... 정직하지 않으며 이웃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윤리를 실천한다는 사람은 위선자이다. 사람이 욕과 같이 틀림없는 사람되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된 후에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 나는 오랫동안 참으며 약자인 중환자들을 돕다가, 환자 틈에 끼여 들어온, 결혼식 날 헤어진 자기 신앙의 임종을 맞아 신앙의 늪은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느님께 감사를 올리는 롱펠로 (Henry Wadsworth Longfellow)의 시 <에반젤린>(Evangelin)을 생각한다. ... ¶ ... 그런데 노동자는 이 처절한 에반젤린보다도 더 참아야 한다. 에반젤린은 죽지는 않았다.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2001: 348-350).

“한편 재림은 곧 사회윤리를 의미한다. 이를 밝혀주는 것은 <마태오복음> 25 장에 나오는데, 가장 작은 자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자, 즉 사회윤리를 실천한 자가 심판의 날에 하느님께 좋은 관정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부분이다. 나는 이 장면을 잘 묘사한 시가 롱펠로우(Longfellow)의 <에반젤린>이라고 생각한다. 침공해 들어온 프랑스군 때문에 한 젊은 내외가 결혼식만 마치고 헤어졌는데, 일생을 교회에 의지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며 살던 신부 에반젤린이 환자의 한 사람으로, 죽기 직전의 노인인 신랑을 우연히 만나 그의 머리를 가만히 들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끝나는 긴 시가 바로 <에반젤린>이다”(2008: 102).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면 **마지막을 잘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밥을 지을 때 마지막 1분을 못참고 미리 내려놓으면 설익어서 못먹는다고 말했다”(2008: 202).

3.3 초월윤리 구분과 순서

“나는 이 책 제 1장에서 내 개인적 경험에 비폭력과 자기희생을 언급했는데, 비폭력은 이 세 범주 중 방법에 관한 것이고, 자기희생은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이 장의 마무리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1991: 40).

“비폭력은 ‘방법’ 범주에서도 **첫번째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내 생각이다. 행정이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회적 관심을 갖고서 조직구성원 간의 합의를 얻어가며 일을 하는 것일진대, 사람의 원시적 기동인 주먹을 써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폭력을 포기하며 이를 해체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의 착수가 불가능한 것이 된다”(1991: 49).

“... 복수라는 그리스어 Ekdikesis의 뜻은 ‘정의로부터 유래한 행위’이다. 따라서 복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응징이나 처벌을 뜻하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정적 의미의 앙갚음이 아니다. ... 즉 **잘못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의로운 응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 따라서 불의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목표로 한, 사회윤리교육을 위해서라도 불의를 행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처벌론이다. ... 또한 프로타고라스가 말하는 사랑(philía)의 유대 역시 정의가 확립된 문명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들 간의 동지애적 유대이지, 불의를 행하는 짐승같은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이들은 문명사회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하는 적들에 불과하다. ... 기독교의 이웃사랑과 용서는 회개하기를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지 않는다. **회개를 선행조건으로 한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조그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며, 예수는 이 가능성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의 험난한 길을 선택하였다. ... **불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응징의 공포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응징이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권 교수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는 응징할 힘이 없는 자들의 현실도피적 비검함을 숨기는 값싼 위장물이 아니라, 인간의 야만성 극복을 위하여 험난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이상인 것이다**”(2001: 167-169)

“회개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이지, 회개를 앓고서 하늘나라를 맞이하라는 말이 아니다**. ... 왜냐하면 **평등사회를 이룩하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여야 하지**, 그렇지 않은 평등사회는 인류사에 역기능을 제공한 사실도 나의 회개에 대한 강조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2001: 171).

“관용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 보아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2001: 488)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멈추어졌다고—이 멈추어짐도 폭력의 자기원리로 너무 강해서 오히려 실패했다—자동으로 평화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의미있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평화를 이룩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즉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 세계 진군을 해 모스크바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도망을 가서 나폴레옹의 말을 먹일 것조차도 없는 형편이 되니까, 진입군이 추운 겨울에 퇴각을 하여 프랑스군이 얼어죽어서 망한다. 말하자면 전쟁이라는 폭력을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멈춰진 셈이다. 전쟁 중에 준비된 인물형이 크게 보아 셋인데, 하나는 개인윤리의 개발을 상징하는 니콜라이이며, 둘은 사회윤리라 할까 貧者와 弱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마리아이다. 그리고 셋은 약자의 선한 단결과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빼엘이다. 이 세 인물 중 주인공이 빼엘인 점에서 빼엘이 갖춘 덕목이 <대학>에 나오는 말 至善에 머무는 단계이다”(1991: 333).

“비폭력의 상징은 전쟁 당시 러시아 군 총사령관인 **쿠트조프(Kutuzov)**가 나폴레옹의 침입에 대응한 전략으로 알 수 있다. ... 결국 나폴레옹의 무제한적 침입에 대하여 쿠트조프는 적군과 엄동(엄동)에 싸우지 않고 회하의 군대를 신속하게 퇴각시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적에게 내어준다. ... 추운 겨울에 침공해 들어간 수도는 큰 도시전체가 빈 집들일 뿐 아니라 나폴레옹 이 타는 말의 식량까지도 그곳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 ... ¶... 쿠트조프의 비폭력 정신, 인내, 직관력, 겸손함이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다. 개인윤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니콜라이 로스토프(Rostov)**를 통해서다. ...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장교출신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내는 것만이 개인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 즉 자기도 잘 살고 자기 집에 딸린 노예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 이처럼 비폭력과 개인윤리의 미덕은 <전쟁과 평화>에서만이 아니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물들 사회에서도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피하는 방법이었다. ... 니콜라이의 부인이 된 **마리아**는 귀족 중에서도 귀족인 니콜라이 안드레비치 볼콘스키의 외동딸이다. ... 마리아는 못생겼지만 온순하고 선량한 성격을 가졌고 눈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 그녀의 자애심은 자신의 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도 실현된다. 즉 보수주의¶자이며 고집 센 노인인 자기 아버지가 안보는데서, 그 당시 러시아 황제의 압제에 반대해 정치적 양심범으로 구속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쏟고, 이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딸이라고 말하고 이들 구속자 가족의 뒷바라지를 한다. ... 주요 등장인물인 **피에르**의 성장에는 자기희생의 덕목을 볼 수 있다. ...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귀족신분이면서 인생에서의 진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는 자기 희생정신을 찾아내고 실천해 가는 인물이다”(2001: 171-173)

“이 작품[전쟁과 평화]이 바로 사중복음의 실질적 내용인 네 가지 덕목, 곧 비폭력,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기희생을 주장한 작품이라는 것을 두 분[정민, 김상준]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한다. 『전쟁과 평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유의미한 고난을 통한 대안 창출자가 생겨났을 때에만 평화가 온다**는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우리를 강점한 일본제국의 포압함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두 분 선각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2008: 101).

“『전쟁과 평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유의미한 고난을 통해 대안을 창출하는 자가 생겼을 때에만 평화가 온다**는 놀라운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는 일본제국의 포악함을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던 두 선각자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네 사람이다. 첫 번째 인물은 비폭력을 상징하는 러시아의 총사령관 쿠투조프이다. 프랑스 군대와 싸우지 않고 모스크바를 비워줌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이끈 비폭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근면한 생활을 강조한 개인윤리의 상징은 니콜라이 로스토프이다. 처녀 때부터 고아가 된 조카를 기르고 악한 정치 체제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는 마리아 보르곤스키는 사회윤리의 상징이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귀족 신분이면서도 인생의 진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희생의 상징은 주인공 피에르 베즈호프이다”(2008: 270; 1991: 333).

“페르시아 대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그 이후 이러한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아테네가 동맹도시국가들에 대하여 해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제국주의 정책을 쓰게 되었고, 이에 반발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대항세력들이 결집되어 커다란 두 세력으로 분열하였다. ... 나는 이것을 아테네 민주정 지지세력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보며,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기심을 극복할 윤리적 요소를 결여했거나 갖고 있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나의 진단과 관련하여 <이솝우화>에서 보이는 **약자의 대응방법 중에서 기독교적 대응방법인 밖에 자기희생이라는 두 가지 점인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그리스 정교회라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전쟁과 평화>가 보여주는 악한 세상에 대한 대응방법은 이 영향을 받지 못한 이솝의 대응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제 2의 가설이다”(2001: 134).

“그런가 하면 <전쟁과 평화>는 희미한 전등빛을 의지하지 않아도 좋은 낮에만 읽었다. <전쟁과 평화>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대안이 되는 인격이 생길 때에만 평화가 온다는 내용의 소설인데...”(2008: 559).

“그런데 <전쟁과 평화>에는 비폭력·개인윤리·사회윤리·자기희생이라는 네 가지 덕목이 모두 제시되었지만, <이솝우화>에는 **비폭력과 개인윤리는 있어도 사회윤리와 자기희생은 없었다**”(2008: 560).

“약자가 사는 비결이 본절에서 나온 ‘더 밖에 있는 자식’의 길과 유사한 진전을 보여준다. 약자는 비폭력을 방법으로 택하며 강자로부터 독립하는데, 강자와 거리도 두지만 적에게 절대로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며 자율적이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로 **약자는 지혜를 갖는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며, 機微를 예리하게 보며, 속지 않는 것이 지혜의 내용이다**. 동지애, 즉 약자의 단결에 관한 우화가 8 개 나온다. 그리고 끝으로 누군가가 자기희생을 해야 약자들이 드디어 이긴다”(1991: 334).

“<이솝우화>는 희랍의 노예가 쓴, 어른이 읽는 동화집으로, 악한 동물이 강한 동물의 횡포를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어두컴컴한 감방은 강하고 악한 동물의 행위와 이를 이겨내는 악한 동물의 비결을 각각 분류하고 대비하며 사색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2008: 559).

4. 비폭력

4.1 비폭력이란?

“이렇게 해서 약자의 비폭력투쟁이 싹터 비폭력이 약자의 제일 덕목이 된다”(1980: 369).

“다르게 변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많은 수의 나머지는 팔쥐이며 이 팔쥐들은 새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콩쥐가 새어머니와 팔쥐에게 안 당하게 하는 제도를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한다. 이 공무원 제도란 반대당(反對黨)에 의하여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지는 않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팔쥐는 내일의 콩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1986: 42; 동아일보 1971. 9.18).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그러니까 **돌을 던지도록 유도된 상황하에서도—학생들이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1986: 291; 교회와 세계 85).

“그 때 여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면서 보리차라도 끓여다 경찰에게 대접을 했더라면 좀더 완전했다고도 생각을 한다. **‘돌만 던지지 말라. 그리고 안할 것은 세상없이 무서워도 안해라’**가 나의 권고다. 이렇게 되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도 슬그머니 퇴각하리라 생각한다”(1986: 292; 교회와 세계 85).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대안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비폭력을 말한다**. 비폭력이란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비폭력의 길을 간다. 따라서 **비폭력은 비폭력투쟁을 뜻한다. 하나는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돌은 올바른 이념에 헌신을 한다**. 실현가능성 공급하기 추구하는 가치의 양이 높은 것이 좋은 대안이다”(1986: 294; 교회와 세계 85).

“**대학에서 추구해야 할 최소의 가치는 아무리 무섭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교도소에 가는 데도 발언을 하는 것은 교도소에 안보내는데 발언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압제 하에서도 아니, 압제 하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곳이 대학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자보현상은 대학의 진리를 보여준다”(1986: 295; 교회와 세계 85).

“전체 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단적으로 말해 평화적 정권교체이다. 정권이 교체한다는 말은 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며, **평화적이라는 말은 쿠데타라든지 국민측에서 발생하는 난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난동이란 4·19 와 같은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과 같은 정쟁(政爭)을 뜻하지 않는다. **난동이란 승리의에 접근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강경화에 구실을 주는 단순하고 감정발산적인 폭력행위**를 말한다. 난동은 따라서 참여의 폭이 좁든가 승리를 향한 전략 전술면에서의 계산이 부족한 행동이다”(1986: 297; 교회와 세계 85).

“나는 이러한 안하무인의 꼴을 관(官)과 민(民)에서 각각 보기 싫다는 것이 내 편견이다. 안하무인의 꼴을 정치학에서 말하길 「벌거벗은 힘」이라고 한다. ... 벌거벗은 힘의 행사를 민이 하는 것도 역겨움을 준다. 비폭력인 강경이 폭력인 강경에 쫓기는 민중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 민도 그렇다. 민의 난동이 순화되어 민이 기능별로 사회집단을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깡패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회집단의 깡패성을 점잖은 말로 사회압력이라고 그린다”(1986: 81-82; 새생명 1975).

“전체 사회에서 볼 때에 왜 국민층에서의 운동이 비폭력투쟁이어야 하는가를 다음에 열거해 본다. 1. 폭력에 기반을 둔 정권은 강한 것이 아니라 허약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는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을 단속하는 법규의 부재를 느끼는 데서 생기는 ‘아노미’ 현상은 그것 자체가 허약성을 드러낸다. 2. 폭력에 기반을 둔 정권은 자기가 정한 법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른바 시민적 불복종 운동으로 지칭되는 비폭력투쟁으로 붕괴가 된다. 3. 실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투쟁이 발생하면 자체분열 경향에 있던 폭력정권이 단결하게 되며 폭력투쟁자를 단속하므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 4. 만일에 해당 정권이 폭력투쟁자를 단속할 정도로 강경하지 못할 때에는 복병과 같이 숨어 있던 체제 내 강경론자가 폭력투쟁자를 단속을 하고 좀더 우경화한 폭력정권을 수립한다. 5. 요행수로 폭력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민주화 운동자들이 운동 방법으로 폭력에 의지하는 경우, 정권붕괴 후에 새 질서를 관리할 대안을 못내게 된다”(1986: 297-298; 교회와 세계 85).

“그러나 참는 자는 마지막을 잘 참아야 한다. 평화를 위한 조짐이 더 많이 보일수록 철저하게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된 평화 원리의 실천은, 그러나 꼭 한가지의 전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이 전제란 철저하고 엄격한 현실이해가 그것이다. 평화의 반대가 되는 폭력에 기반을 둔 경제 문화체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평화의 실천도가 높을 것이다. 평화실천이 없는 현실인식은 이론의 제시를 위한 이론 제시라는 하나의 인기주의에 빠지게 된다. 현실인식이 없는 평화실천은 그런가 하면 패배주의를 만들게 한다. 이 두가지를 다 구비한 자가 참으로 원칙론자인 ‘레디칼’이다”(1986: 298; 교회와 세계 85).

“... 상급자가 자제할 것은 자신이 결정 안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일과 타인이 결정할 일을 결정하지 않는 일이다. 이쯤되면 이는 작고한 조지훈 교수의 명언 ‘사람은 안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와 통하는 경지이다”(1986: 329; 고대신문 1985. 5).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을 담고 있는 육체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런 육체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은 것을 비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어렵듯이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존경하시는 인물인 간디의 작품을 읽은 후이다”(이문영 1991: 17).

“모든 실력을 갖추고 계시면서—때릴 수 있는 실력까지도—이 실력을 행사하시지 않은 아버지의 비폭력인 사랑이... ‘창씨하라고 어디 법에 있나요.’ 이 때에 아버지의 어조는 조금도 흥분해 있지 않았고, 또 더 다른 말씀을 첨부하시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강자로서 너그럽지 않고 사람을 누르려고만 하는 사람이나 그런 태도를 싫어한다. ... 나는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합리성이나 규칙을 내세워보고 싶어한다. 이 습성도 일본인이라는, 말하자면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으로 굽히지 않으신 아버지께 배 습성이다”(1991: 18; 1986: 19; 샘터 1971. 11).

“이 강자가 계속 살인자로 남아 있지 않기 위하여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보복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에게 보복을 안하는 것을 통칭 비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비폭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1991: 95).

“하루는 아버지가 계신 방에서 학교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종로경찰서 사복경찰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에게 왜 창씨개명을 안 했냐고 형사가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을 안붙이고 담담하게 ‘어디 창씨개명 하라고 법에 있습니까?’라고 되물을 뿐이었다”(2001: 228).

“폭력과 비폭력의 중간가치는 합리성 rationality 이다. 때리는 것인 폭력의 반대는 때를 맞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맞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때리는 것이 제거가 됐다면 남은 것은 말하는 것만 남은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말은 남에게 하는 것이며 남이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전문지식을 포함해 이치를 갖고서 말을 해야 한다”(1991: 118).

“또한 아버지가 일제의 관현에 대하여 ‘말할 것만 말하시는 것’을 보며 정리된 나의 비폭력의 제 1 의는, 이래야 약자가 일단 보호가 된다는 생각이다. 아버지의 비폭력은 비굴한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1991: 18-19).

“한편 官憲에 대하여 과다한 행동을 안했기 때문에 관현에 의하여 아버지가 살아남을 확률은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할 경우보다는 아버지가 비폭력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에 대한 비폭력이나 나의 거의 무기력에 가까운忍冬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것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원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폭력의 제 2 의는, 이제는 약자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다”(1991: 19).

“너무 많이 자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순은 새순이 붙어 있는 몸체의 신진대사를 따라야 하지 체제 외로 뛰어나가려 해도 안된다. 이 모든 절제가 무기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힘이며 성장하는 힘이며 폭력보다 강한 힘이다”(1991: 19).

“예를 들어 비폭력의 덕목이 공무원에 적용되는 경우 권력남용의 금지를 지칭할 수 있다”(1991: 27).

“... 나는 하급공무원인 교도소의 부장이 와도 정좌를 하며 그에게 존대말을 쓴다. 그러나 내 규칙지키는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지 교도관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 아니다”(1991: 349).

“규칙은 상식의 표현이기도 하다”(1991: 351).

“그런데 智體에 앞서서, 즉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의 덕목에 앞서서 존재해야 할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이를 비폭력이라 고 지칭한다. 정부의 경우를 볼 때 禮라는 고급 기법이 도입되기 전에, 예를 들면 禹王과 같이 홍수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에서 智를 사용하기 전에 권력남용을 함부로 못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도 대인관계를 고려하여 그 전에 공부라도 하기 전에, 즉 禮와 이에 앞서는 智 이전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 나는 이 덕목을 非字가 든—왜냐하면 무엇을 안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선다고 보아서—非暴力이라고 지칭한다”(1996: 403-404).

“**‘이하며 素해야 하는 전 단계의 세계를 나는 ‘비폭력’이라 지칭한다. ... (1) 네 덕목 중에서 앞의 위치에 있는 禮보다도 더 앞서는 세계가 비폭력의 세계이다. ...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하며, 喪을 형식적으로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禮이다’ ... 검소함이나, 슬퍼함이나 다 자기를 단속하는 것, 즉 자기에겐 안하는 것이 있는 점이 같다**”(1996: 419).

“(2)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할 것을 안하는 것보다는, **안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니까 안하는 非가 더 중요하다.** 한 할 것을 하면 보통의 징벌이 아니라 하늘이 그 거절하지 못한 자를 버린다고 볼 정도로 ‘非’를 중요시 한다.... 자기를 이기는 일(克)을 못하니까 방자한 행동을 한다”(1996: 420).

(3) 원수는 비폭력으로 갚는다. 원수는 주변에 있기 마련인데, 원수갚는 것을 덕으로써 한다면 덕은 만능이 아니어서 덕으로만 갚으려 해서는 부족하다. **정직함으로써 원한에 갚고, 덕으로써 덕에 갚아야 한다.**<憲問> 36 의 글이 이를 말하는데, 이 글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원한으로 여기는 자에게 사랑과 미움, 취하고 버림을 한결같이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으로써 하는 것이 이른바 정직한 것이다. ...**’ 이 경우 德은 필요한 덕목이지만 直이 이루어진 다음에 德을 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直은 이 德보다 전 단계의 행동이다”(1996: 421).

“(4)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왕에게는 천하가 돌아간다. 3 에서 비폭력이 원수를 갚는 효과를 거둔다고 말했는데, **비폭력의 효과는 원수를 갚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가 그에게 돌아오게 할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1996: 423).

“과거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비폭력을 배운다. 그리고 악한 대안이 아니라 선한 대안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최소한 폭행을 가하는 일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왜 우리는 과거에서 비폭력이라는 덕목(德目)을 배우나? **포악한 정권이 쥐고 있는 것은 무기와 폭력이지만, 악한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은 악한 정권에 대하여 정의에 입각한 말함과 저항이기** 때문이다. ... 지난 세기 말, 동구권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내 나라에서 오랜 기간 끌었던 포악한 정권들이 무너진 것은 **총을 권 정권을 향하여 ‘말함’이라는 비폭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승리였다.** 민주주의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적용될 규칙을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비폭력의 실천보다 다음 단계인 개인윤리의 구체화이며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해결할 문제이다”(2001: 88).

“국민을 출게 하고 절망케 하는 관(官)은 국민을 잡아가고 돈을 뜯어가는 폭력 행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비해서 국민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따뜻한 정부는 폭력의 반대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한다. **폭력의 반대어는 말함이다.**<요한> 1 장 1 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다. 말함 자체였던 예수를 폭력이 죽였고, 이 죽인 예수를 믿는 이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요한>의 전체 개념이다. **말함이 권력남용을 본래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관에 대하여는 교훈으로 나타나며, 말함이 사람 사이에는 화목으로 표현된다.** 두 사람 이상이 각자가 다 말이 있었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경우 사람들 사이에 말을 맞추며 서로가 합의를 보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곧 말함을 중요시하는 비폭력문화의 한 표현이다**”(2001: 105-106).

“비겁한 자만이 죽어가는 통치자를 모욕한다는 교훈이다. 이 예에서 볼 때에 **비폭력은 약자의 품격을 높이는 행위**이다. 포로로 잡힌 ‘나팔수 병정’이야기는 **비폭력이라 철저히 비폭력이어야** 함을 말한다. ... 적은 ‘네 자신이 싸우지는 않았으나 너는 너희 쪽 병정들을 격려하였고 인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비폭력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국회에서의 여야관계와 같이 절차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말하하는 이야기가... ¶... 국회같은 데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밀치며 사람의 포악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야유하고, 실제로 존경하지는 않으면서 상대방 의원을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부르고 신사의 흉내를 내면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다. 조선시대에 천민들이 탈을 쓰고 봉산춤을 추며 양반사회를 풍자하면 구경꾼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들이 탈을 벗고 몽둥이라도 들고 양반에게 직접 대들면 이것을 감히 찬성하는 이가 드물었던 것과도 같다”(2001: 149-150).

“1) 비폭력: 야곱. ... ‘...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라고 한 말은 신이 인류에게 마련한 첫번째 비폭력 조치이다. 이와같이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야훼는 비폭력의 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아벨은 죽었으므로 비폭력을 그가 직접 실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약자가 비폭력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역사상 처음 보는 과제를 인류에게 남기게 되었다. 이 과제를 실천한 이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에게 비폭력으로 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 ¶... 야곱이 이와 같이 그를 죽일지 모르는 형 에서와 화해한 것이 아벨과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다. 이 외에도 야곱은 아벨과 다른 데가 있다. 하나는 그가 몹시도 둘째아들을 면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둘째아들을 면하려는 노력과 관련되는 악으로 야곱은 끈질기게 그의 개인 악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아들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개인 악이 가려진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도 하지만, 살아남은 둘째아들이 개인윤리 면에서 오히려 할 과제를 인류에게 남긴 사람이 야곱이기도 하다”(2001: 204-206; 1991: 305-306).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플 때 나는 비폭력 부분, 즉 <로마서> 12:14-21 에 이어서 <야고보서> 5:9 을 거듭해서 읽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보면 내가 아픈 것이 몸에 통증이나 열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고 미워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할 때 나는 이른바 ‘패싸움’에 익숙해 이겨야 좋고 지면 분해해 잠못 이룰 때가 많다. 이 경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그러니까 싸우는 양측이 다 좋게 여기는—일을 하도록 마음을 돌리지 않을진대는 나는 내 몸에 병이 생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가르침 때문이다”(2001: 257-258).

“둘째, 악한 통치자의 악은 피치자 ...의 **성숙하고 완전한 제재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자인 통치자를 선불리 건드려 강경책을 강화하게 하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대응책보다는 강자가 꾀없이 악을 계속 저지룰 수 없게 하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약자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08: 59).

“11. 비폭력은 국민이 악한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데 사용될 첫째 덕목이며, 무엇인가를 통치자에게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한 자가 드디어 무슨 사적인 이익을 통치자에게서 얻어서도 안된다”(2008: 66).

“비폭력이라 통치[¶]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약자는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2008: 68-69).

“따라서 폭력 행사란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할 비폭력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2008: 159).

“반대하다가 한 자리를 주면 가만히 있는 자는 한낱 ‘반항아’이고 한 자리를 주어도 계속 반대하는 자는 ‘혁명아’라는 사회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나는 생각했다”(2008: 278).

“의원: 이 교수님은 강경한 것말을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시군요. 나: 온건한 안도 안받아들여지니까 이 온건을 고집하는 게 강경한 것이죠”(2008: 464).

“우리의 경우, 쿠데타 정부의 조찬기도회에 악령이 가득 찬 목사들이 갔으며, 악령과 세상의 영화를 한 손에 다 쥔 것이 과격한 군사정부였다. 이런 정부가 바로 길 가는 사람에게 짓밟혀 씨가 죽어버리는 길가 밭이다. 내 말을 조심스럽게 듣기 바란다. 나는 과격한 정부만을 나무란다. 과격하지 않은 정부는 민의를 대표하며 국민의 존경을 차지한다”(2008: 576).

“나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고 결정한 뒤에 대통령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과격이라고 본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살려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일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대통령이, ‘나는 관습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과격이다”(2008: 576).

“과격한 정부는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후진국 국민의 두 가지 악마지 국민의 것으로 뒤집어쓰게 된다. 아니, 뒤집어쓰는 정도가 아니라, 과격한 정부와 ‘부패하고 분열하는 국민’이, 말하자면 코드가 맞아서, 한덩어리가 되어 그 과격함이 극에 달하게 된다.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라는 속담을 초월해야 하는 이가 공직자인 대통령이어야 한다”(2008: 578).

“그[함석헌]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순박하던 백성이 나쁜 정권 밑에서 사느라고 얼굴이 변해서이다. 그리고 나쁜 정권은 외국의 침공을 하도 많이 받아 그 힘에 굴복하여 목숨을 유지한 정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을 유지했던 정권으로 제일 꼭대기에는 통일신라가 있다. 동족상잔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의 영토를 당나라에게 바친 나라가 통일신라였다. 이 시원의 경험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 후 우리 겨레는 어디 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장이 되어야 속이 편한 부류의 과격한 사람과 대장이 된 사람에게 빌붙어야 하는 분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못하겠으니 돈이나 쟁기고 사는 부패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 겨레는 예수가 받은 세 가지 유혹을 심각하게 겪은 겨레이다. 즉 뒷자리에만 앉으려는 과격과 붙어먹는 분열과 돈이나 벌자는 부패는 예수가 받은 세 가지 유혹 그대로이니, 신라의 악이 얼마나 나뉘었는지 알 만하다”(2008: 588-589).

“가라지의 악이 ~~근~~든 곡식의 악이 ~~근~~든 악의 근원은 정부의 과격이다. 과격한 정부의 과격 밑에서 목숨을 붙이고 사는 국민은 원래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라의 모습이 이 정도로 되면 그런 정부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해 외국의 침략 앞에 굴복한다”(2008: 589).

4.2 비폭력과 말: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

“또 다른 하나의 복, 체험은 고생을 하는데도 나 스스로를 과격에 내맡기지 아니한 복이다. 고생을 하는데 친척이나 친구가 안찾아온다고 불평이나 하는 사람으로 떨어질까봐 나는 종종 자성을 했다. 나는 민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하고 근심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체제는 비폭력을 사용해도 폭력적 체제를 고쳐보려는 나의 시도가 고작해 말할 것이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원리가

“한마디로 때리지 말고 말로 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말이 만들어내는 최종 생산물이 약속이다. 이 약속은 계약이니 법률이니 하는 형식을 취한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명이기도 한 소리가 여기에 있다. 약속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폭력정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비롯된다”(1980: 357; 1986: 305; 기독교 사상 84; 1991: 317).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도리를 믿어 이를 믿다는 것은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일이다.”(1983: 4)

“민법의 기초를 이루는 3 대 원칙은 계약자유 원칙, 재산권 절대 원칙, 그리고 고의과실 원칙이다. 이 세 원칙을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칙으로만 보는 경우 재산권 절대 원칙이 이 셋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사로 된 사람 상호 간의 약속을 기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필자의 입이다. 고의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진다는 원칙은 자유스러운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약자유 원칙과 동일계통의 원칙이다”(1986: 306; 기독교 사상 84).

“이 약속을 존중하는 관행은 사회생활에서뿐 아니라 개인생활에서도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서 신앙에서 보듯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도 자기의 갈 길을 가며 포악한 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여러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지니면서 삶을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성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1986: 306; 기독교 사상 84).

“이 시점에서 전술한 양심법들의 약속에 대한 집착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심법들은 일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몸바쳐 공부하기로 약속한 자기의 전공과목 공부에 열중했다고 보여진다. ¶... 한편 이 양심법들의 대사회적 계약관은 어떠했을까? 도대체 양심법이란 뜻이 사회적 계약 위반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대가로 감옥에 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유신헌법 철폐니 민주회복이니 등이 양심법들이 내세운 이념의 거의 다인데 이들은 무엇인가? 이들은 다 애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집권자가 어기는 것에 대한 이의를 표명하는 말들이다”(1986: 307-308; 기독교 사상 84).

“그러나 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반체제운동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그것이 비폭력문화 쪽이라고 생각을 한다. 죽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방의 목숨을 끊기 위하여 자신들을 무장을 하고 있는 이가 이런 나라들의 반체제인사들이다”(1980: 382).

“한국의 반체제 운동의 특색은 비폭력에 있습니다”(1986: 344; 『世界』 2월호).

“하나는 이 쪽은 말을 못하게 폭력을 사용하지만 다른 쪽은 비폭력 저항의 길을 간다. ‘주먹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합시다’라는 흔히 듣는 말은 진리이다. 유신체제 때에 구속된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반체제인사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 폭력행사를 거부했다는 데 있다. 의를 들어 남미에서는 반체제인사들의 한 집단을 비행기에 태워 밀림 상공에서 땅으로 투하해 버리는 만행을 정권이 저질렀음에도 이들보다도 유신체제 하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성직자들이 오히려 세계여론의 지원을 더 받았었다. 그 이유는 남미의 반체제인사들은 무력을 사용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비폭력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1986: 318-319)

“남미나 아프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의 뺨 한번을 때려보지 못하고 자기희생을 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이 죄없는 국민 안에 들어간다”(1980: 386; 1986:335; 고대신문 1985. 5).

“과연 문민통치의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치유신 때까지도 무인통치를 해 왔던 일본과는 달리 **장승은 비폭력문화**의 상징이다”(1980: 383).

“(1) 장승은 蘇대(숫대)에서 연유된 풍속인데 숫대는 원래 경계를 정하는 역할도 하며... (2) 장승이 남녀인 것이 평화스럽다. (3) 남자는 천하대장군이고 여자는 지하여장군인데 여자가 장군인 것이 그 군대가 인간화된 군대임을 시사한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일찍부터 여자가 장군인 여권이 신장된 나라도 드물리라. (4) 두 장군이 다 활이나 칼이나 창을 안 들고 있는 것이 평화스럽다. (5) 입은 복장이 갑옷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인 결혼식날 입는 예복이다. (6) 두 신을 지붕이 있는 집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며, 장승의 자료가 돈이 많이 드는 금, 은, 동 등이 아니라 쉽게 구해서 만들 수 있는 나무이다. 이상은 장승이 제도된 종교의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1980: 383-384; 1986: 310 (1부터 4까지); 기독교 사상 84).

“(7) 하나 더, **장승의 특징은 참는데 있다. 참는다는 것은 포악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갖출 덕목의 모두이며 비폭력문화의 정상을** 말한다. 장승은 비바람을 맞으며 집도 없이 서 있다. 장승의 참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장승의 소재가 쉽게 사그러지는 재료인 나무인데에 있다. 나무가 아닌 돌이나 쇠로 만든 것과 비바람 사이에는 참는 것으로 이어지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같이 쉽게 소멸해 버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참을 때에 그 참음이 덕으로 정신화한다**”(1980: 384); “**참는다는 것은 포악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갖출 덕목의 모두이며 비폭력과 동의어이다.** 장승은 비바람을 맞으며 집도 없이 서 있다. 장승의 참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장승의 소재가 쉽게 사그러지는 재료인 나무인데에 있다. 나무가 아닌 돌이나 쇠로 만든 것과 비바람 사이에는 참는 것으로 이어지는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같이 쉽게 소멸해 버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참을 때에 그 참음이 덕으로 정신화한다**”(1986: 336-337; 고대신문 1985. 5).

“내가 앓아 있기를 싫어하는 예배의 다른 하나는 「교회출석 잘하고 연보 많이 내라」는 설교를 하는 예배이다. **이런 식의 말은 폭행에 가까운 말이다.** 교권과 교회조직 강화가 싫은 것이라면 이러한 권력강화에 반대되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내세워야 한다.** 나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진리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된다. 나는 진리까지는 못 갈지 몰라도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상식은 무슨 학술논문집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 주고 받는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말이 통하는 나라만 되면 좋겠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인간을 과다하게 억압하는 권력에서 비롯됨이 분명하다. 때려서 일을 하니까. 예수님 때의 형편으로 보아도 교권과 정권이 결탁이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속박하니까 말이 안통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1986: 242).

“합리성, 인간관계, 사회적 관습, 이해관계의 네 중간가치들 중 사람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가치는 ... **합리성**이 될 것이다. ...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깊은 동기를 갖는 것이 이 이해관계이며, 이것보다 좀더 외면에 나타난 것이 사회적 관습, 이 사회적 관습보다 좀더 외면에 나타난 것이 인간관계, **끝으로 제일 거죽에 나타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본다.** 추운 교도소 감방에서 나는 양파에서 파란 잎이 나오는 것을 관찰한 기억이 난다. 파란 성장물의 뿌리는 추운 속에 열이 있는 거죽이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열지 않는 중심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1991: 120).

“거듭 말해서 양국이 주도권을 상실한 국가의 운영 방식이 곧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이다. 양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여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모색한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하나. 폭력 정치에 대하여 저항하여 말할 수 있는 자유. 둘, 피치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유. 셋, 서로서로의 말이 교환된 후 서로를 구속하는 약속을 만들어내는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때리지 않고 말로 하는 사회가 민주 사회이다. 말이 만들어내는 최종 생산물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계약, 법률 등의 형식을 취한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약속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폭력 정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비롯된다”(1996: 617; 1991: 317).

“이들이 한 일이 기껏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발언을 한 것 뿐이다. 이 점에서 **폭력의 반대어는 비폭력이라기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983: 14).

“따라서 **말이란 칼을 상대로 한 文 즉, 글이다. ... 진리의 반대어는 비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다**”(1983: 90)

“이 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때리지 말고 말로 합시다’는 맞는 말이다. 인간 사회에서의 말의 오고감을 통하여 진리가 생긴다. 따라서 **진리의 반대어는 비진리니 허위니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폭력이다. ...** 이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 그것도 큰소리도 못되고 개미소리 만한 작은 이성(이성)의 말을 했는데, 그나마 이 말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 그러니까 **말의 반대어는 침묵이 아니라 폭력이다**”(2001: 187-189).

“상황 1에서 예수의 비폭력 저항—비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지는 폭력이나 폭군의 웃는 얼굴과는 거리가 먼 저항—을 본다. ... 상황 1에서 **비폭력이란 저쪽에서 때리더라도 이쪽에서는 말로만 대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말의 형식을 빌린 폭력의 행사가 아님을** 상황은 보여준다. 따라서 **폭력의 반대어는 말을 계속하는 일이다**”(2001: 246).

“예수를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람에 관하여 법률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폭력적이 아니지만, 법률사실이 어찌 나오건 간에 예수를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폭력적이다”(2001: 246).

“예수가 내세우는 권위는 **당당한 한 사람이라는 권위뿐이다**. 그가 세상사람에게 버젓이 말한 것,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친 것, 공개적으로 말한 것 등이 바로 이를 말하며, 굳이 내세우는 권위가 있다면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 이에 반해서 말도 안되는 것을 묻는 통치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예수이다. ... 폭력을 쓰는 통치자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말해 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고 끝까지 말로 대응하는 것이 예수이다. 이 통치자의 방법인 폭력행사는 그것 자체가 말로 진행해야 하는 수사의 원리를 어긴 행위이다. **법률사실을 캐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에게 예수를 죽이는 법이 없어서 끌고 왔다고 말하는 것도 예수라는 사람과 말로 하자는 전체를 시원적으로 무시한 커다란 약속위반이다**”(2001: 247).

“2) 취조과정에서 본 예수의 ‘일’관. ...¶... 이 세상의 왕은 뭔가를 한다고 설치는 유위(有爲)의 왕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무위(無爲)를 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국민의 고유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의 왕은 원래 국민 각자이다. ... 국민 각자가 통치자를 선출하여 왕 노릇하며, 따라서 일도 스스로 하는 유위(有爲)의 왕이 곧 국민 각자인 것이다. ... 나는 ‘**정치를 하고 하지 않고는 내 자유인데 왜 묻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고유의 권리인데, 이 권리를 국민이 포기하면 군인들이 정권욕으로 쿠데타나 더 하라는 말이나** 하는 것이 대답의 요지였다”(2001: 249-250).

“3) 예수의 ‘사람’관. ...¶... 악한 통치자의 ‘사람’관은 어차피 손찌검, 즉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 말살될 수도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관은 사람을 하느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며 비참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다. ...¶... 학대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당하고만 살다가, 드디어는 자신의 것을 모두 오히려 기쁘게 가해자를 포함한 이웃을 위하여 바치며 생을 마감하는 한 겸손한 생을”(2001: 250-253).

“7. 내 아버지가 형사에게 말했듯, 피치자는 통치자에게 **통치자도 가지고 있는 이성(理性)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며 이 이성을 환기하는 말로 요구한다**”(2008: 66).

“아버지는 잡혀갈까 봐 두려워 변명하거나 일본식 창씨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힐난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만 위와 같이 한마디만 하셨다. 그 한마디는 **적의 이성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말씀이었다**. 그 경찰은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갔다”(2008: 80).

“**설혹 내가 맞아 죽더라도, 악한 통치에 저항해 희생당할지언정 그에게 육체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정신이 창출해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이때 어렵듯이 짐작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2008: 95).

“따지고 보면 이 말은 일제 때 아버지께서 형사에게 하신 말씀과 닮은꼴이었다. 내 경우 박정희의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후에 내가 한, 행동하는 말 가운데 첫 말이었다. 나는 이렇게 내 아버지 덕으로 쉽게 비폭력 투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때 한 말이 무서울 때 했던 말이었고 그 후에 행동으로 한 말들이 모두 무서울 때 한 말이었음을 회상하며 나는 이를 뜻있게 생각한다. ... 내가 한 말도 악한 정권에 네 법이라도 지키라는 말, 즉 자기 법도 안 지키는 박정희를 심판하는 말이었다. 이것은 정의를 말한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길—을 말한 셈이다”(2008: 257).

“4·19 날 안병무 교수 댁에서 예춘호, 김종완, 고은, 김상현, 문익환 내외, 이해찬, 이해동 내외, 우리 내외가 모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어차피 쿠데타 정부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후광은 나가 있으니 안전하고, **다만 재야가 과격해지지 말아야 이 사람들이 파쇼화하는 구실을 안 주게 된다**’”(2008: 391).

“곧 택시로 대학교로 해 기독교빌딩 앞에 차를 세운다. 마침 현아 엄마와 안박사 부인이 현관에 나오면서 지금 기동대가 농성 중인 네 분을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오후 세 시 경에 200 명이 들이닥쳐서. 그러나 피하라는 것인데 연동교회 쪽으로 한 20 미터도 걷기 전에 뒤에서 사복 경찰들이 와 나를 잡는다. 내 차로 간다니까 자기네 차로 집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북부서 강 형사가 나를 잡는다. 북부서 정보과에 현아 엄마가 같이 간다. 계장실 하나에 함 선생님이 깊이 있고 생각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다. 문 목사님이 독이 나서 과사무실에 앉아 계신다. 나는 과장실로 안내된다. 조금 있다가 형사가 와서 과장보고 ‘문 목사가 반공계로 자리를 옮기자 하니, 나를 짐짝같이 끌고 왔으니 끌고 가라고 안 움직여요’한다. 고장이 ‘뭐? 죄인이 무슨 큰소리야?’라고 악을 쓰며 나간다. 나는 길길이 악을 쓴다. ‘이 짱패 놈아 네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냐? 죄를 졌으면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경찰서에 끌고 온 놈이 짱패이고, 너 과장이란 것은 짱패 두목 아니냐!’ 마침 박용길, 박영숙, 김석중이 밖에 있어 야단들이다. 밥을 안먹고 수사에 안응한다”(2008: 400-401).

“함석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가 나타낸 진리를 증거할 사명을 지녔다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진리를 위해 나라를 부정하면 나라가 살아나지만, 나라를 위해 진리를 부정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진다.’ 여기서 **진리관 곧 악한 정부에 대항하는 비폭력인데**, 비폭력은 한 사람 이탈자를 살려내는 마음이다”(2008: 580).

4.3 약올림 미학

“본문은 ‘孺悲—죄를 지어 공자가 싫어한 인물—가 공자를 뵈고자 했는데, 공자는 병이 있다고 거절하고 명을 전달하는 자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비파를 가져다 노래를 불러 거절당한 이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와 같다. 여기에는 공자의 命으로 돌리는 초연함과 나쁜 놈을 바로잡아 주는 直이 모두 보인다. **죄인에게 거절을 하되 비파를 치는 행동은 악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이다**. 비록 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나 그의 시작은 비폭력적이었다. 조선조 태조시 방원이 장구를 계모 姜氏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을 갖고 노십시오’라고 말해 대낮부터 서울 기생을 불러들여서 노는 왕세자의 非를 지적한 고사가 생각난다. **장구 하나 가져다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과연 비폭력적 행동이어서 그 효과가 커 이것이 계기가 돼 그날로 계모가 혈압이 올라가서 죽고, 계모가 죽자 줄초상이 난 것을 왕위 회복의 줄거리이다**”(1996: 421-422).

“내 차례가 왔을 때 ‘검사의 화를 돌워 미치게 만들고, 나는 길게 말하고, 검사가 결재받아 오지 않은 것을 물음으로써 악한 정권의 본색이 내 질문으로 폭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폭로된 것이 내신에는 물론 안오았지만 외신에라도 나오게 하자’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서 일순간에 정리가 되었다”(2008: 296).

“질문을 시작[한] 검사에게, ‘옹졸하게 마이크를 치우지 마시고 나에게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로 내 대답을 시작했다. 검사를 약올리자는 계산이었다. 드디어 검사가 결재받고 오지 않은 질문을 나에게 했다. ... 나를 법대 교수라고 시비 거는 말이 나오자 나도 시비 거는 말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말 잘 하셨어요. 검사는 어느 대학 법대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총칙 시간에 무효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안배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2008: 296-297).

“방 벽에 붙여놓은 태극기 인쇄한 것과 <교육현장>을 제거하고 새벽에 기상 시간이 되자마자 마이크에서 박정희 노래인 <새마을 노래>가 안나오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쥐똥, 파리, 모기, 빈대를 방에서 치워달라는 내용도 썼다. 방안에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 난방을 해달라고도 말했다”(2008: 304).

“서울구치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이감가기 직전 어느날 새벽에 느닷없이 스피커에서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는 異變이 생긴다. 이런 노래는 안부르기로 18 개 조항에 약속이 된 것인데 버젓이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되 그것도 흘러나오는 노래 중 제일 먼저 흘러나오지 않는가? 약속위반이다. 이렇게 약속은 강자가 어긴다. 정부가 지켜야 법의 지배가 가능해진다. 나는 이 때에 내 애용의 무기 플라스틱 목침을 또 사용하면서 ‘박정희 노래 집어치워라!’를 외친다. 더운 물 달랠 때같은 소동이 난다. 보안과장과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눈다. 과장: 약속을 어겼다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도 않고 박정희 노래가 뭐니까? 나: 아니, 과장님은 슈벨트의 노래를 슈벨트의 노래라고 하지 슈벨트씨의 노래라고 합니까? 과장: ...’”(1991: 352-353).

“멀리서 매맞아 지르는 비명을 계속 들었다.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다. 한승헌, 이해동도 계속 매를 맞았다. 재야가 내란음모를 했다고 조작해 올라움을 감지했다. 나는 매도 안 맞고 손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다. 취조관이 약 오르게 일부러 간죽거렸다. 내 조사관이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에 때리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 다짜고짜 ‘네가 말이 많다면?’ 하면서 침대 각목으로 나를 아무 데고 닿는 대로 때렸다. 나는 비명을 안질렀다. 양쪽 방의 한승헌, 이해동, 건너편 방의 한완상도 내 비명을 안들었을 것이다”(2008: 369).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돈 받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나가서 더 심한 말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은 주권재민 사상입니다. 주권재민이니냐 나보다 국민이 더 높습니다. 당신네들의 이성도 거절하지 못할 말입니다.’”(2008: 435).

5. 최소주의

“그리고 여호와와 신은 이상주의자이기보다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이어서 야곱이 최소한도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개하는 것을 뜻있게 본다”(1980: 370).

“또한 특정관행의 성공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지녀야 할 最貴의 것을 파괴하지는 말 것을—이 최귀의 것을 더욱 더 존중해나가지는 못할망정—생각할 수 있다”(1983: 13)

“노동 3 권이니 경영참가권이니의 보장보다 생존권의 보장이 앞선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을 하게는 해주고—안락한 생활이 아니라—참으라고 말을 해야 그 말이 통할 수가 있다”(1983: 23)

“자기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사람은 세상을 본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경향을 벗고 비참한 밖의 세상에 있는 이—예수는 이런 이들을 지극히 작은 이라고 하신다—를 위해서 최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의 현장에 관한 행동명령이다”(1983: 117).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일이 아니며 말하자면 최소한의 일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도 일방적 즉 정부에만 요구하는 그런 일도 아니며 국민들도 할 일이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 ㉠ (1)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할 것. ... (2)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이론을 국민이 만들어 낼 것. 민간 연구소 대학 종교단체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은 행정, 정치 속에 들어가되 이왕 들어갔으니 출세나 해야겠다는 좌절감을 갖지 말고 그 속에서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 ...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행정, 정치체제가 회개를 하도록 회개할 자를 친절하게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 난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和而不同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화목은 하지만 의견은 몇몇하게 달리하는 君子의 태도가 아쉬웁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형편은 체제내의 위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며 심지어는 위사람에게 아첨을 할 정도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실상은 모두 화목하지 못한 同而不同과 우리의 실태라고 생각한다. (4) 체제의 회개를 촉구하는 (즉 권력남용을 견제하도록 촉구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든지 이를 만드는 자를 도울 것. 회개는 무슨 도덕적 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할 때에만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인주주의 철학의 기본이다. ... 그런데 이 빛은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는 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부에 대해서는 권리, 사회 내 위사람에 대해서는 권위, 정부 내 위사람에 대해서는 권한 등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그 계층을 계기로하여 슬그머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두움의 지배가 자리잡게 된다”(1983: 166-168)

“성육에서 평화에의 그리움에 이르는 사랑의 대상이 지니는 진폭은 이렇게 넓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넓은 것이 아니라 기껏해 모아놓은 것들이다. 최소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육, 연애, 가정, 일용할 양식, 노동할 권리, 평화스러운 공동체 등은 살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를 갖기 바라고 이를 사랑해야 할 최소의 것이다”(1986: 95; 엘레강스 1978. 4).

“최소의 희모 속에 있는 이는 행복하다. 물질과 이기적인 특징인 같은 것에 매어 있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수준으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최소의 것이 침범받았을 때에 본연의 인간이란 무엇일까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 나는 입은 옷이 벗겨지고 푸른 죄수복이 입혀졌을 때 그리고 머리를 뽀뽀 깎인 내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나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는 나를 알게도 되었지만 그런 스스로를 떨치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한편으로는 사람의 외모가 나쁘다고 해서 그 인간성까지도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1986: 96; 엘레강스 1978. 4).

“최소를 가질지 말지 하는 한계상황에 사는 사람만이 그 최소마저도 상실된 상태에서의 존재를 음미할 능력이 있다. 건강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경(死境)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는 특권이 있다”(1986: 96; 엘레강스 1978. 4).

“최소의 것을 빼앗긴 자가 갖는 행복을 하나 더 찾는다면 빼앗은 자를 미움으로만으로 대하지 못하는 인간의 품위를 갖게 되는 행복이다. ... 최소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문화를 나누어 볼 때에 셋 정도의 문화 형태가 인류역사 사상에 있어 왔다. 하나는 빼앗은 자에 굴종하는 문화다. 둘은 빼앗은 자에 대한 미움을 배경으로 하여 물질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문화다. 셋은 이기심의 종이 되어 있는 일개인에의 굴종도 거부하며 그렇다고 물질 수준에의 인간의 타락도 거부하는 민주주의 문화다. 왜 우리는 미움 아닌 대안을 내세워야 하나. 최소에의 혐모를 존중시하는 이는 최소의 것을 빼앗은 이에 대하여도 최소의 것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인간 본연에 대한 혐모가 있기 때문이다”(1986: 96; 엘레강스 1978. 4).

“넘어지기 직전에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손짓을 할 분이 인도의 간디다. 빼앗은 이의 모습을 도저히 그의 원래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품격에 대한 외경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반응을 갖게 만든다”(1986: 97; 엘레강스 1978. 4).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극도로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인 사랑의 하나인 나라 사랑도 그렇다. 나라의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일 나쁜 것을 지적하되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 극심한 자기희생을 역시 각오해야만 나라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986: 97; 엘레강스 1978. 4).

“양극화 상황에서 난동화하기 쉬운 민중과 포악하기 쉬운 기득권층과의 사이에서 견제 화해의 역할을 하는 사회집단은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1986: 101-102; 크리스찬 아카데미 1978. 12).

“피하기만 하는 것은 겁먹은 이고 그렇다고 몸을 던지기만 하는 이는 망을 가진 이다”(이문영 1991: 25).

“다칠까봐 몸을 움츠리면서도 일단 그날이 오면 다칠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지는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해 ‘긴요한 최소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1991: 25).

“나의 두번째 계통의 ‘마지막’ 경험들을 돌이켜볼 때 이 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국이 극도로 무서울 때의 행동이었다”(1991: 25).

“이런 무서운 상황하에서의 최소행동이란 그 택하는 방법이 신중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폭력, 동지들 간의 철저한 합의에 의한 운동, 시민일반의 호응과 연대를 도모하는 일 등이 신중한 운동방법 안에 포함된다”(1991: 25-26).

“한편 시국이 무섭지 않을 때의 행동은 최소한의 행동의 아니기 마련이어서 어떻게 보면 과다한 요구를 정부에 한다. 그러나 무서울 때에는 기회주의적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 운동이 하는 일인 요구하는 주장은 한 가지이다. ... 끝으로 무서울 때의 최소행동은 행동 후나 행동성공 후에 개인적 이득획득을 목적에 두지 않는 데 있다. ... 이런 운동자는 운동 후 자신의 고유생활로 돌아갈지언정 운동을 통한 이득—두드러지게는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바라지 않는 점에서 자기희생의 덕목을 지닌다”(1991: 26).

“... 브린톤의 책 <혁명의 해부>는 건전한 혁명—그러니까 재야활동—을 온건과 운동으로 지칭한다. ... 재야활동이 비폭력운동을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를 실천해나가며 공무원은 권력남용을 억제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피치자의 비폭력은 통치자의 횡포를 교정하는 역할도 하며 자신의 세력을 포악한 통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991: 28).

“현대가 겪었던 4 대 혁명 중 프랑스와 러시아의 두 혁명과 영·미 두 나라 혁명의 차이점을 비교한 크레인 브린톤 (Crane Brinton)의 책 <The Anatomy of Revolution> (Englewood Cliffs, 1957)이 이 점을 밝힌다. 영·미 두 혁명은 성공했지만 프랑스·러시아 두 혁명은 실패했던 것이다. ...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혁명 후 제자리로 가서 그간 움츠리고 있었던 국민 일반이 주권자로 활성화했던 나라가 영미이며, 혁명이 뒤에서 혁명가를 조정해 살아남은 자가 정권을 차지한 나라가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것이다”(2008: 333).

“브린톤은 현대에 일어난 네 가지 혁명 중에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혁명자들이 이성이지 아니라 잇속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하여 정부로부터 잇속을 챙겨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의 시기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혁명이 끝난 후에 그 열매를 따 먹은 형태가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혁명 때 행동했던 이들이 혁명이 끝나 후에는 대체로 자신의 본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악한 정부의 이성이 거절하지 못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 해직과 옥고를 치른 1970년대 운동의 불씨를 잘 살려냈어야 했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86 세대를 자랑했는데, 386 세대는 가장 무서웠던 때인 197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이들이 아니었다”(2008: 582).

“(4)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비교적 시국이 무서울 때에만 발생했던 행위였다. 무서울 때의 행위는 무서움을 관정하는 정부가 과하는 불이익—해직·투옥·원고 청탁의 끊김 등—을 감내하는 행위이다. (5) 끝으로 이런 행동은 원래는 행동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며, 말을 하되 말만을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말하는 것을 굳이 행동이라고 말하면 이는 비폭력 투쟁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말만을 하는 행동은 위의 (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존적 발언, 즉 최소한의 발언이 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무서운 상황이 악화되면 말을 계속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본업으로 되돌아간다”(1996: 56).

“덜 무서워지자마자 바람직하지 않은 기독교 재야운동이 곧 생겨난 것을 나는 목격하였다. 그것은 무서울 때 경험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인데, 그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운동의 방법, 운동이 내세우는 주장, 그리고 운동자의 성격 등으로—간추려 본다. (1) 무서울 때에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폭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어차피 운동의 뒷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놓고 운동자의 뒤에서 조종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과의 연대를 상실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 (2) 말을 하되 운동에 적합한 말이 되기보다는 운동자의 인기 위주의 말을 하게 되었다. 말을 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의 이해 관계 추구가 되어 마구 과격한 말을 하게 되었다. 민주화라는 목표에만 맞춰지던 요구가 요구의 다수화로 변질되었다. 안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 (3) 갑자기

정치적 권력을 모색하게 된다. 무서울 때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곧 교도소행이었다. 이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무서울 때에 참여를 안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뒤에서 한, 그래서 운동을 덜한 사람들이다. **적에 의하여 정확한 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한 기독교 정치인인 김영삼 씨가 박정희의 죽음 이후 나섰고, 또 6.29 이후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당으로 들어가 3당 합당을 하였다.** ... <혁명의 해부>(크레인 브린톤 저, 차기벽 역)라는 책은 혁명이 끝난 후에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은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극을 전한다”(1996: 673-674).

“다만 **신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도인 것**이지만, 사람은 현실에서 최대의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하며, 행동의 기준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선악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2001: 263).

“이렇게 **비폭력은 비폭력만으로 멈추지 않고 개인윤리→사회윤리→자기희생으로 그 덕목을 첨가해 나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이다**”(2008: 65).

“**사람의 진정한 값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나는 예수님의 진면모를 알려면 그의 일관성을 보아야 하며, 그가 제일 불행했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2008: 78)

“나는 윗사람이라고 마구 누르지 않고 아랫사람은 난동을 안부리며 윗사람을 존경하는 상태의 통치가 **따뜻한 통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생에게 비폭력을 실천했다고 내가 앞장에서 말했지만, 거기서도 형제간의 무질서를 비폭력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2008: 79).

“<주기도문>을 계속 보면, 12 절과 13 절은 인(인)인 윤리적 행동을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윤리적 행동도 최소한도로 필요한 행동이지**, 우리 모두를 무슨 애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2008: 105).

“**나는 지켜야 할 최소를 지켜려 하는 최소주의자였다**”(2008: 150).

“이런 행함 후에 민주화된 정권에서 관직을 얻지 않고 교수직으로 돌아가 ...”(2008: 213).

“무섭지 않을 때 말하면 말도 많고 말 많은 만큼 잇속도 많이 챙기지만, 무서울 때는 최소의 말을 해야 하고 이 말 때문에 손해를 보아 정의의 길을 걷게 된다”(2008: 258).

“**나는 무서운 유신정부 아래서 꼭 필요한 저항을 하는 최소의 한 일꾼, 바닷고기로 치면 고래는 당연히 아니고 삼치나 갈치나 조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먹는 멸치도 아니고 멸치들이 먹는 부유생물 플랑크톤이 되고자 다짐했다**”(2008: 275).

“나는 감옥에서 암전하게 있었다. ... 나는 교도관에게 꼭 존대말을 썼고, 아침저녁 점호 때에는 내 방에서 정좌를 했다. 2심 재판이 끝날 무렵에 **양심범에 대한 교도 행정에서 고쳐져야 할 점**이 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가 교도관에게 말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나는 습관대로 추운 겨울날 어느 저녁에 심호흡과 요가를 했다. 몸에 땀이 흠뻑 났다. 나는 냉수마찰을 하고 나서 자리를 깔고 취침을 했다. 밤중에 잠이 깨더니 갈증이 났다. 그래서 저녁에 받아둔 물을 마셨다.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나는 복도로 난 문을 똑똑 두드렸다”(2008: 302; 1991: 351).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더운물이 없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또 문을 똑똑 두드렸다. 그가 왔다. ‘만일 댁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싶다면 어떻게 하세요?’ ‘저 난로에서 끓여 마시지요.’ ‘그러면 저에게도 난로에서 끓여 주세요.’ ‘안됩니다.’ 그와 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내가 더운물을 못 얻어마시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며 갈리리 교회에서 성찬을 함께 한 동료들도 나처럼 찬물을 마시고 덜덜 떨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더운물 한 모금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라고 생각했다. ... 생각한 후에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교도관이 안왔다. 그러자 나는 플라스틱 베개로 쇠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교도관이 달려왔다. 다시 더운물을 달라고 말했다. 물을 안주겠다. 그러면 더운물을 달라는 청원을 교도소장에게 하겠으니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2008: 303; 1991: 351).

“마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데 선수를 뒷바라지 하는 관리자가 선수들이 차지할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언젠간 KNCC 회의에서 나오면서 문익환 목사가 날보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먹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생각이 난다.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열매를 따는 이가 선수가 아니고 관리자가 됨을 염려한 말이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했다. 그렇다고 **선수인 내가 열매를 따자는 것은 아니고 선수는 경기가 끝났으면 자신의 고유직으로 복직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교회협의회에 참석했던 목사도 또 다른 행정직을 맡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한 농촌 교회의 목사로라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2008: 333).

“고은, 문동환에게 ‘지금 곧 김영삼 총재를 만나러 가자’라고 한 내 말이 김영삼의 총재직 제명에 이어 박정희의 사망을 낳았던 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예전에 내가 문동환에게 ‘해직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를 만들시다’라고 말한 것이 ‘갈릴리교회→3·1 민주구국선언→김대중의 등장→김대중의 재야인사로서 자리 굳히기’로 이어진 생각도 났다. **최소가 최대를 만든 것이다**”(2008: 343).

“이 취조관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다른 직원들이 내 서재에 올라가 있을 때 날보고 뭐든지 감출 것이 있으면 감추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니, 그가 나에게 말하자면 정보를 준 셈이다. **정치·행정 체제가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하고 나갈 때 통치 체제 내 사람도 흔들리는 것을 보여준 한 예였다**”(2008: 368).

“다만 문익환은 민주화가 곧 통일이며 통일이 곧 민주화라[고 분명히 말했다. 문익환이 날보고 의견을 말하라고 했다. 나는 **민주화가 통일에 이를 수는 있어도 통일이 곧 민주화라는 논의는 통일을 빙자한 독재 정부의 출현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나는 선통일론은 운동에서 기피해야 할 인기주의라고까지 극언을 했다”(2008: 390-391).

“첫 육고를 겪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 육고 때는 기가 죽었다. YH 노동자 김영숙이 죽었고 나는 기껏해야 육고였던 것이다. 세번째 육고 때는 육고라 해도 죽어 나오지 못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손도장을 찍은 나는, 민주화는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 일반의 계몽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로 향해 가는 나를 경험하게 해준 것이 바로 육고였다. 이렇게 최소의 나와 커다랗고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님을 말하는 것이 내가 석 달간 미국·일본·유럽 등을 여행하면서 펼친 강연의 주제였다”(2008: 425-426).

“목사의 기능은 어려운 일, 즉 교도소 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어려움은 일을 하는 사람의 뒷배를 목사가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뒷배를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사람의 뒷배를 본다는 구실로 고생하는 사람들 뒤에서 조정하고, 이 조정하는 것을 일한 것으로 착각해 덜 무서운 세상이 됐을 때 열매를 따 먹는 것이 목사들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운 사람도 자신을 견제하지 않으면 여로보암같이..., 예후같이 ...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다”(2008: 432-433).

“나는 교회협의회 목사들이 쉽게 김영삼을 편드는 것을 보았다. 그런가 하면 쉽게 김대중 정권에서 이런저런 감투를 쓰는 것도 보았는데, 정권에 들어가 바른말도 못하고 자기가 속한 교단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런 목사들이 고려때 요승(妖僧)과 같다고 생각했다”(2008: 433-434).

“저놈들의 방침은 양김씨 분열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분 중 저놈덜이 더 미워하는 이는 김대중씨이지 김영삼씨가 아닙니다. 그러니 김영삼씨가 김대중씨를 형으로 정확하게 모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한 뒤로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2008: 434).

“한완상이 유니언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봤다. 나는 그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운동의 초점을 민주화에 맞추어야지 전통일에 맞추면 적이 제일 미워하는 김대중씨—김대중씨도 그때 미국에 망명한 상태였다—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직교수도 심심해도 강의 준비를 해야지 왜 바쁘냐는 것이다. ... 나중에 그가 편 현실적 이상주의론인 햇볕정책은 이러한 전통일 요구를 흡수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1980 년대의 움직임이 흡수된 386 세대는 ‘참여정부’때 외교와 공존을 무시하고 통일부터 하자고 얼마나 설쳐냈는지 모른다”(2008: 438).

“1996 년에 학교 당국이 펴낸 <고려대 90 년사>를 보면, 현민 사건을 다루긴 하되 학생들이 현민의 친일과 행적을 문제 삼았다고는 안 썼으며, 많은 교수들이 사건을 일으킨 다섯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는 말도 쓰지 않았다. 나는 현민 사건 때 최소를 요구했다. ... 현민 빈소 사건 후 큰 20 년이 지난 오늘, 현민을 평가하는 눈과 고려대가 달라진 것을 나는 본다. 지금은 현민에 대한 평가가 전두환의 국정에 자문한 사람이라기보다 일제 때 학병 출정을 독려한 친일파라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독재자의 국정을 자문한 것을 더 나쁘게 생각한다. 거듭 말해서, 나는 깨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최소를 고집하는 최소주의자다”(2008: 481)

“돌이켜보면 고려대에서의 내 마무리는 그 전 시대보다는 훨씬 덜 무서운 때에 말을 하되 더 무서웠던 때 했던 말과 동일한 질을 유지하고자 애쓰던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무서웠을 때 내가 한 말은 적의 이성이 거절하지 못하는 최소의 말이었으며 그 말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입었다. ... 이런 행위와 달리, 나는 내 나라의 민주화에 관한 말만 했다”(2008: 491).

“따지고 보면 고려대 교수로 보낸 32 년은 나에게 ‘말’ 자체였고 말 때문에 나는 박해받았다”(2008: 492).

“비록 내가 박정희를 비판하더라도 정부가 나를 박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다. ‘정부도 거절하지 못하는 말을 하되 말만 한다’는 생각은 내 일생을 관통한, 그러니까 내 민주화운동의 화두였다”(2008: 497).

“2006 년에 출간한 이 책[협력형 통치]에 흐르는 핵심 생각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1. 악의 근원을 통치악으로 본다. 2. 통치악을 극복한 대안들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고전으로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다. 3. 악한 정권을 향한 민의 대안은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2008: 586).

“그러니까 <협력형 통치>는 ‘행정의 최소 조건’이라 이름붙인 내 저서 5 부작에서 마무리 작품에 해당한다. ‘행정의 최소 조건’ 5 부작이란 내 박사학위 논문, <자전적 행정학>, 정년 후에 쓴 세 책을 말한다”(2008: 587).

“끝으로 <협력형 통치>의 세 번째 면모는 악한 정권을 향한 국민의 대안은 최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소란 <마태오 복음> 25 장 40 절에서 사후에 죽은 일을 시험하는 임금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따온 생각이다. 원효율곡함석헌김구는 자신이 산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제공했던 인물이다. 원효를 예로 들어 보자. 불교계에서 바른말을 했어도 불교를 끝까지 떠나지 않은 점이 바로 그가 한 최소였다”(2008: 612).

“<이사야> 50 장 4-9 절은 아훼의 종이 부른 세 번째 노래이다. ... 이 노래를 대했을 때 내 눈을 번쩍 뜨게 한 말이 부싯돌이다. 부싯“처럼 내 얼굴빛을 번치 않게 야훼께서 하신다는, 일종의 건강술을 나이 든 내가 대하기 때문이다. ... 이 구절을 따를 때 학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성을 녹슬지 않게 닦는 것이다. 이 이성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첫 구절을 필두로 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되 서로 친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고달픈 자를 격려한다. 이성은 늙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마음으로 듣는다. ... 이성은 그 지향을 궁극적인 존재에 맞춘다. ... 이성은 이성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의 박해를 받을 때 비폭력으로 대처한다. ... “이성은 이를 견지하는 자의 얼굴빛을 부싯돌처럼 번치 않게 만든다. ... 이성은 끝까지 기운이 있다. ... 이성은 이성을 대적한 자의 멸망을 믿는다”(2008: 614-615).

“한마디로 나는 오늘의 세상에 말이 많은 것도 걱정이다. 그런데 이 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말이다. 1970-80 년대 민주화운동을 돌이켜볼 때에 편차가 꽤 생겼다.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란 쿠데타 정부의 이성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민주화 요구를 하여, 그 대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다”(2008: 615-616).

“넷째, 그런가 하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 중 본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들어가 한자리를 한 이들이 있다. 한자리를 했다는 말은 바른말 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기독교장로회 목사들이 민주화운동 때의 열정을 갖고서 교회에 돌아가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교회와 교단에 모범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2008: 616-617).

“다섯째, 민주화운동으로 집권한 정부가 친북정책을 펴다고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이 이들과 북한 정권을 동시에 공격하는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것은 다른 종류의 이탈 행위였다. 이런 행위는 구악을 회개하지 않는 우익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편차 행위의 공통점은, 행위자가 옳음이 아니라 잇속을 챙긴 점, 대중영합주의였다”(2008: 617).

“이상의 다섯 가지가 나를 끈질기게 유혹했고, 나는 끈질기게 이를 물리쳤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남으면, 말하자면 ‘부식들’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2008: 617).

“문교수는 나더러 힘이 있고, 예리하고, 순수하다고 말했다. 악의 근원을 통치악으로 보는 나는 악한 통치자와 대결했으니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전을 연구했으니 예리하다. 대안으로 최소를 찾으니 순수하다”(2008: 619).

“스위스의 중요 수출품은 정확한 시계이다. 그런 시계를 만드는, 흔들리지 않는 스위스인들의 손은 프랑스 궁전을 끝까지 지켰던 스위스 용병의 정직함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 바다에 부유생물 플랑크톤이 없으면 어떻게 멸치가 있을 수 있으며, 멸치가 없는데 어떻게 조기기가 있을 수 있는가”(2008: 675).

“삼일운동과 1970-80년대 운동후 유명인사들이 변절했던 것은 마치 바다에서 고래, 조기, 멸치가 멸종한 것과 같다. 이것들이 멸종한 원인은 플랑크톤의 멸종에 있다. 플랑크톤은 씨알이고 맨사람 백성이며,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던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변절해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우리를 배신했을 때에도 개의치 않고 만세 불렀던, 흰옷입은 백성들이다”(2008: 677-678).

“부화(부화)란 알을 까는 것이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요. 알이 독수리가 되는 것이다. 알이란 꼭 있어야 할 최소를 가리킨다. 사람에게 최소가 있어야 최대가 나온다.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2008: 681).

“내 시작은 어린이 부흥회 때 형이라고 동생들을 자의적으로 때려 그들을 부자유의 늪에 빠지게 했던 것을 뉘우쳐 온 것이었으니, 이 울음은 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울음이었다. 앞으로 쓰고자 하는 책 <새 문명에서의 공직자>도 최소를 지향한다. 새 문명에서는 최소자가 최대로 돋보이고, 공직자는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최소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이 마지막 시도는 나의 첫 시도가 다시 행해짐을 뜻하며, 마지막 시도가 첫 시도의 다시 행함이라는 것은 처음에서 마지막에 이르는 과정이 최소화를 향한 몸부림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내가 받은 가르침, 행함, 문명의 탐구가 이 과정의 토막들이다”(2008: 683).

6. 개인윤리

“<부당하게 높고 있는 이 편에서 / 밑의 사람을 눌러고 / 그 놀림의 댓가로 돈을 받아 비대해지고 / 그 돈으로는 부패를 하던 사람>이 <낮고 엷는 자 편에서 / 비폭력의 길을 가며 /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며 / 개인윤리면에서도 나무랄데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당하게 높고 있는 이>가 나쁜 것이지 <높고 있는 이>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 부당하게 낮고 엷는 이의 편만을 드는 것이 아님도 유의해야 한다... 이 제 4 단계의 지성도 역시 포악한 체제에 의하여 꺾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1983: 70-71).

“건전한 재야활동이 개인윤리를 강조하면 노조는 일단 정해진 약속을 불리하더라도 지키는 행위인 단체협약의 준종을 배우게 된다. 이어서 공무원들은 법률준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법치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안 받는 측은 피치자가 아니라 치자였던 것이 점차로 수정이 된다”(1991: 28-29).

“... 개인윤리라는 덕목 안에 이 상호 간에 만들어진 약속을 준수하는 일을 포함시킨다. 상호 간에 만들어진 약속을 준수하는 것만이 개인윤리의 내용은 아니다. ... 개인윤리의 첫째 덕목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는 본다”(1991: 49).

“타락, 그것도 몇몇 편차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하게 국민 일반이 타락한 경우와 철저한 개인윤리가 있는 것 사이의 중간가치는 인간관계의 향상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 정도라고 생각한다. 인간관계의 향상이 개인윤리의 대응어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국민도의의 일반적 타락—이 타락도 전술한 바와 같이 통치자의 橫暴에서 기인된 타락—이 숨을 죽일 것을 전제로 한다”(1991: 118).

“정부건 개인이건 일단 폭력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일하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첫번째는 개인윤리의 덕목이다. 개인윤리의 성립 조건에는 (1) 지능의 획득과, (2) 사람 사이에서—정부의 경우 조직 내 구성원 간이나 조직 내 구성원 외부의 국민 간에—합의를 모색해서 이 합의된 것을 준수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거듭 말해서 전자가 智이며, 후자가 禮이다”(1996: 404).

“오늘의 입헌주의 상황에서의 개인윤리를 보자. 입헌주의 정치에서는 극우와 극좌가 지닌 폭력 행사가 일단 금지된다. 군사 쿠데타는 말할 것도 없고 법률안의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자들이 존재하는 나라는 입헌주의의 시작도 안된 상태이다. 비폭력을 전제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함에, 문제 해결의 장소는 의회이며, 문제 해결 담당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며, 해결할 문제의 내용은 의원들 간에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따라서 폭력행사가 멈춰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말’이다. 실로 폭력의 반대되는 개념은 ‘말’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법률이라는 약속을 만들 뿐 아니라 이 약속을 여당이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는 약속의 준수가 개인윤리의 최고봉임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정치제도이다”(1996: 404-405).

“(1) 개인윤리 면에서 지식습득의 면보다는 수양의 면이 더 많아야 습득된 지식이 제대로 된다. ... (2) 많이 배운 것을 요약하는 것이 지식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요약하는 태도이다”(1996: 425).

“실천으로서의 개인윤리에 보이는 특징을 다음에 열거한다. (1) 보잘것 없는 길모양으로 노화해 가는 가까이 있는 신세진 사람을—예를 들면 부모를—존경하는 것이 개인 윤리이다. 가까이 있으며 신세진 사람, 그것도 육체가 피폐해져 가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면대 있으며 아무 관계가 없었던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2) ‘홀러가는 강’ 그림의 샘물에서 보듯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正顔色)—이것 이외에 기침하는 것이나 몸가짐하는 것 등을 잘하는 것—을 모든 행동에 앞세우는 것이 개인윤리이다. ... (3)

운동경기나 전투와 같은 육체적 경쟁에서도 서로 지켜야 할 개인 윤리가 있다. 그래서 **운동경기에는 규칙이 있으며**, 전투에도 적용될 국제법이 있다. ‘군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활쏘는 데에서는 경쟁을 한다. 상대방에게 읊(揖)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술을 마시니, 이러한 다툼이 군자다운 다툼이다’ ... (4) 마치 음악에서와 같이 각자가 지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화합을 이루는 것이** 개인윤리이다. 고전음악회에 청중들이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음악과 예의는 서로 통한다. ... ¶ ... (5) 동지들과 같이 일하다가 **공은 동지들에게 돌리고 불리한 것은 자신이 담당하는 것이** 개인윤리이다. ... (6)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타인을 적게 책하기 때문에 원망이 멀어지는 것**’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 <衛靈公>...)이 개인윤리이다. ... (7) **上下間에는 신임을 첫째로 쏘는 것이** 개인윤리이다. ‘군자는 신임을 얻은 뒤에 백성을 부리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부리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 신임을 얻은 뒤에 간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간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 (1996: 427-429).

“2) 개인윤리: **사물의 이치를 안다**. ... ¶ (1) 사물을 안다. ... (2) 안전한 곳을 안다. ... ¶ ... 약자는 무엇이든 한 가지의 확실한 안전책을 아는 것이 불확실한 안전책 백 가지를 아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을 ‘여우와 고양이’ 이야기가 말한다. ... ¶ (3) 적을 안다. ... 적의 위장을 안다. ... ¶ ... 적의 속이는 것을 안다. ... 첫째로 드릴 말씀은 포로가 약속하는 것을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 손에 넣은 것은 그대로 지니세요. 세째는 잃어버린 것을 영원히 서러워 마세요. ¶ ... 이해관계가 있는 강자의 말을 약자는 알아차려야 한다. ... 위급할 때에 곧 대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치도 아니다. 적의 욕심을 안다” (2001: 150-156).

“3) 개인윤리: **誠意正心을 갖는다**. ... 우선 사람은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허황되지 않아야 하며, 끝으로 바른 마음 正心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이습우화>는 보여준다. ... (1) 자력으로 한다. ... ¶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끈질기다. ...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알고 그 사람만이 하는 일이다. ...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신만 의지하지 않는다. ...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적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 ...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자유인(자유인)이다. ... (2) 자신을 안다. ... ¶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 자신의 언행이 불일치한 것을 알아야 한다. ... ¶ ... (3) 헛된 소망을 안 갖는다. ... 어떠한 곤경에 처해도 약자가 자신을 내세워 밀고 가려면 악한 강자처럼 허세부리지 말며, 또 그 소망하는 것이 사실에 입각하고 있어야 한다. ... ¶ (4) 드디어 정심(正心)을 갖는다. ... 약자가 욕심을 버림은 악한 강자가 욕심으로 뭉쳐 있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나쁜 음식에 견디며, 고생많은 생을 포기하지 않으며, 천한 직업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1: 156-161).

“4) 개인윤리: **합의를 존중한다**. ... ¶ 사람이 단결을 하지 않게 되는 이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은혜받은 것을 잊기 때문이다. ... 둘째, 한쪽 편을 정확하게 편들지 않고 기회를 엿보기만 하기 때문이다. ... 세째, 계속해서 속이니까 진짜로 도울 때[필요로 할 때]에 안 돕기 때문이다. ... 네째, 어려울 때 돕지 않기 때문이다. ... 다섯째, 서로가 싸우기 때문이다. ...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악은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싸우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형식을 통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안해야 하는 형식의 행동들이다. 그리고 이 안해야 하는 일들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어려운 일들이다” (2001: 162-163).

“2) 개인윤리: 요셉. 이 야곱이 이미 이룩한 것 두가지—살아남은 것과 비폭력의 실천—을 다 이룩하고 야곱이 못한 개인윤리를 실천할 인물의 등장이 이제 필요해졌다.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 인물이 야곱의 열 한번째 아들 요셉이다. (1) 요셉이 형들의 어떠한 꾀박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2) 그의 개인윤리는 어떠한가, (3) 그와 그를 박해한 형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 (1) 박해에서 살아남음. ... ¶ ... (2) 개인윤리. ... 집안에선 요셉이 주인보다 실권이 더 있지만 그 여자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 ¶ ... 이상과 같이 요셉은 돈 관계와 여자관계가 깨끗한 사람이었고, 주인이나 왕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 (3) 비폭력. ... ¶ ...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개인윤리의 두 요건인 첫째, **말로하는 것과 둘째, 말을 했던 사람과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 이 두가지를 충족시킨다.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셉의 행동은 그의 생각, 판단의 근거가 된 시시비비, 집안 일이나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알맞은 지식획득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 요셉의 경우도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이나 지신을 무고하게 고발한 사람에게 비폭력으로 대하고 있다. ... **요셉도 <이습우화>에 나오는 악한 동물들처럼 사물, 안전한 곳, 적 등을 잘 파악한 지식있는 사람**이었다. ... ¶ ... 요셉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일의 처리를 자력으로 하였으며, 자신을 알았으며, 헛된 소망을 안 가졌으며, 드디어는 욕심을 안 갖는 정심(正心)을 가졌었다. 끝으로 요셉은 <이습우화>의 성공한 약자들처럼 은혜받은 것을 잊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한쪽만을 편들었고, 계속해서 진심이었으며, 어려울 때 자기가 속한 나라와 친형제들을 도왔으며, **관련된 사람과 화목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등 전형적인 ‘합의’를 존중한 사람**이었다” (2001: 206-211; 1991:306-308).

“개인윤리는 **크게 보아 지적(知的) 대응과 합의도색**으로 양분된다. ... 당의 소속당원들이—소속 당원들이라 하지만, 당에 등록이나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 당원들까지도 당원으로 인정되는 소속당원들—예비선거를 통하여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의 공직에 한 사람씩 후보를 선출한다. ... 이에 비해 자기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추천한 나라가 내 나라였다. 3선 개헌을 무리로 감행한 이승만, 많은 양심범을 감옥에 가두고 만든 유신 헌법하의 박정희, 광주학살을 이어서 제 5 공화국을 만든 전두환, 그 뒤를 따른 노태우, 그리고 노태우에게 항복해 들어간 대가로 공천을 받아낸 김영삼 등의 예는 명백한 미국 예의 반대 예들이다” (2001: 373).

“높은 사람은 검소해야 한다. 검소한 속에서만 물질의 효용이 극대화하며, 그 효용이 극대화된 물질을 지닌 사람이 고귀하다” (2008: 440).

7. 사회윤리

“재야활동이 사회윤리를 갖출 때에 노조는 노조원의 것이 되어 어용노조나 제 3자의 것이 아니게 된다. 공무원도 의뢰인인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적 자세를 갖게 된다” (1991: 29).

“仁이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惻隱之心을 그 단서로 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仁의 현대적 개념은 곧 사회윤리이다**. 그리고 사회윤리는 개인윤리가 발전된 다음에 발전되는 덕목이다. 개인으로서 무능하며 개인간에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약자를 돕는다’라고 운운하는 것의 허위를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다. ... 한편 **사회윤리인 仁은 곧 정부가 하는 ‘일’의 기본 정신이다**.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함이 ‘일’이지 가시적 물량을 눈앞에 만들어냄이 ‘일’이 아닌 것은 이미 검토한 바 있다” (1996: 405).

“(1) 자식의 윤리생활—개인윤리만이 아니라 사회윤리까지의 생활”—이 이미 잘 되어 있어 부모는 자식이 병들까만을 근심할 정도로 된 부모의 교육내용이 사회윤리이어야 한다. ... ¶... (2) 사회윤리를 행하다가 죽더라도, 그리고 이를 행하는 것이 스승을 앞서는 일이 되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고 행하는 것이 사회윤리이다. 사회윤리는 혼자서 하는 개인윤리와는 달리 타인으로부터의 수난—죽이는 자는 타인이다—이 있으며, 스승을 앞질러 행하는 경우도 있다. ... (3) **홀아비, 과부,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 눈먼 사람 등을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 사회윤리이다.** ... ¶... (4) 사회윤리가 실천되지 않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예를 들면 (3)에서 말한 홀아비, 과부,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 봉사 같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굶겨 죽은 것이다” (1996: 433-435).

“(5) 사회윤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정부는 반드시 그 최고통치자(왕)가 일신의 욕심만을 따르든지 아니면 부국강병책을 쓴다. ... (6) **사회윤리가 없는 통치자—지금으로 치면 독재정부—를 몰아내는 일은 일호의 사욕도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 ¶ Crain Brinton의 *Anatomy of Revolution*에 의하면 현대의 4대 혁명 중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혁명이 실패하고 영국과 미국 혁명이 성공했는데, 그 원인은 실패한 나라의 정치담당자는 욕심으로 혁명에 참여했던 기회주의자이고, 성공한 나라의 정치담당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1996: 436-437).

“(5) 사회윤리: 좀 더 어려운 일인 사회윤리. 사회윤리란 불행한 자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쪽이나, 도움을 준 쪽이 모두 잘되는 효과를 지닌 윤리덕목이다. 왜 사회윤리는 개인윤리보다 더욱 어려운 일인가? 그 예가 두 개밖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불행한 쪽을 돕기가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도움을 받은 이가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준 자를 고맙게 여겨서 공생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를 돕는 것이나, 도움받는 것을 감사해 하는 것이나 모두 고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협력만이 깃뚫히기 마련인 약자의 뿔과 주권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1: 164-165).

“(3) 사회윤리: 모세. ... 사회윤리 면에서의 요셉의 흠은 비추했던 양곡을 무상으로 백성에게 주지 않은 데 있다. 요셉은 돈을 받고 양곡을 팔았고, 백성에게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받아냈고, 팔아먹을 가축이 없게 되자 토지를 곡식 대가로 받았다. 드디어 온 백성들이 다 파라오의 종이 되었다. ... (1) 박해에서 살아남음. ... ¶... (2) 비폭력. 모세의 비폭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파라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야훼를 예배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열변이나 모세가 말로만 간청한 것에서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구나 요구방법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광야에 가서 야훼를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에 속한다. ... ¶... (3) 개인윤리. ...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하듯이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행동의 기준이 선이어야 하며, 아버지같은 존경할 만한 위사람을 갖고 있어야** 개인윤리를 갖춘 사람이다. ... ¶... (4) 사회윤리. ... ¶... 이 이야기에 보이는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친다는 말’, 즉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야훼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이 곧 사회윤리이다. 따라서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에집트에서 노예생활 하는 데서 탈출케 해 가나안 고향으로 귀환케 한 것이 모세의 고유의 성격이다” (2001: 211-216; 1991:308-309).

“왕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으로 **그 약자의 주장대로 일을 하는 것이 도덕적 근거를 나는 사회윤리로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사람의 성숙단계도 사람이 삶을 사는 방법의 근거였던 개인윤리의 실천, 그 다음 단계가 이 사회윤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2001: 167).

8. 자기희생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정부 밑에서 약자가 폭력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이며 사회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당하는 인물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다” (1980: 371).

“노동운동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해 일단 합의된 것도 무시하고 혁명본부의 지시에 따라 무산자독재를 하는 노동자조직이 아니다. 노동쟁의는 노동쟁의를 하기 위함이지 계급투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상급계급을 비판하지만 축제와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를 승화시킨 봉산탈춤이나 서구지역사회인들의 바보제들은 그들이 이와 같은 덕목을 지닌 자들임을 보여준다” (1980: 372).

“예수의 마지막에서 보는 운동 비결, 즉 여섯번째의 비결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새 역사의 가능성을 보이는 일이다. 예수의 부활과 신도들의 모이기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만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운동도 그렇다 노동귀족을 없애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전태일분신 자살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고비에 놓인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고, 그 후의 노동조직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1986: 137).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극도로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인 사랑의 하나인 나라 사랑도 그렇다. 나라의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일 나쁜 것을 지적하되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 극심한 자기희생을 역시 각오해야만 나라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6: 97; 엘레강스 1978. 4).

“자기희생의 덕목이 공무원에 적용되는 경우는 **상급자로부터 받는 불리한 평점과 조직으로부터의 추방을 무릅쓰고 행하는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위를 말한다**” (1991: 26).

“**건전한 재야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의식하지 않는 자기희생적 행동을 하면 노조는 노동쟁의만을 하지 다른 운동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조의 운동은 행정부 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급자의 지시보다는 조직 외부의 국민의 요구수용을 더 중요시하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한다” (1991: 29).

“끝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보는 최악의 상태가 권위주의적 태도라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최선의 상태는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1991: 49).

“인간의 권력에 관한 경험을 ‘남의 것을 빼앗는 상태’ ↔ ‘남에게 나의 것을 자유의사로서 빼앗기는 상태’로 양극화할 때 후자의 상태가 자기희생이다. 이 자기희생은 *leadership as excellence* 로서 마땅히 안해야 할 것을 안하는 능력을 상급자가 지니는 최고의 덕목으로 보는 Bamard 의생각과 비슷한 취지이다” (1991: 51).

“나는 그 당시 청년들에게 곧잘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왜 저쪽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까지도 때리라고 해야 하나?’를 물었던 것 같다. ... 그 답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남에게 주어도 또 남에게 맞아도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윤리만이 사회윤리를 잉태하며, 죄가 많은 데에 은혜도 많다. 사랑은 이런 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며, 남에게 빼앗겨도 오히려 모자람을 느끼는 아낌없는 빼앗김이다. 이 점에서 사회윤리는 자기희생을 잉태한다”(1991: 116-117).

“사람이 갖는 최대의 적극적 태도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는 결단을 말한다”(1991: 338).

“부계사회에서 아버지는 강자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해체하기 마련인 것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일을 맡아서 집을 지키는 자기희생자이기 마련이다. 내 집에서도 내가 아이들에게 모범되는 것이 있다면 비폭력이 모범이고, 집사람은 자기희생이 모범이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나의 유학, 시집살이, ㅁ 감옥의 뒷바라지를 한 이가 집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아버지는 이 포악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비폭력의 상징이며 어머니는 자기희생의 상징이다”(1991: 364-365).

“자기희생이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1991: 366).

끝으로 義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 앞장 끝부분에서 보았듯이 정부권력의 비대화가 일의 담당자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듯 사람의 진가는 물질이나 육체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비대화의 반대 개념이 ‘자기희생’이다**”(1996: 405).

“비폭력자와 자기희생자는 모두 ‘마땅히 이해’할 것을 안하는 사람들’이다. 둘 다 뭔가를 안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마땅히 이해할 것을 인식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개인이 자신에 있어서 이해할 것이며, 후자는 개인이 인식한 정부가 이해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걷는 과정은 (1) 정부가 마땅히 이해할 것을 자기희생자가 인식하는 단계, (2) 이 마땅히 이해할 것을 감히 행하는 정부로부터 희생자가 혜택받는 것을 거절하는 단계, (3) 이러한 ‘거절’로 인하여 희생—소외와 죽음—을 당하는 단계, (4) 희생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단계, 그리고 끝으로 (5) 이 희생자 때문에 희생자가 지켰던 **『규칙』** 악한 세상을 구출하는 원칙으로 만민에게 인식되는 단계 등이다.” (1996: 437-438).

“넷째 덕목인 자기희생은 비폭력, 개인윤리, 그리고 사회문제[윤리] 등이 **누적된 사상이기도** 하며, 여기에다가 자기희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상을 첨가한 사상이기도 하다” (2001: 88).

(6) 자기희생: 거의 불가능한 자기희생. ... 이는 자기희생을 한 사람만이 모진 마음의 사람들을 마음 깊은 데서 감동시켜 전체 사회를 구원해 내기 때문이다. ... 『우리 역사에서 일제시대의 3·1 운동과 1970·80 년대의 반체제운동은 다 외투를 단단히 입은 정권에게 태양을 내리 쬔 운동이었다. 그리고 3·1 운동과 1970·80 년대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겨레를 위하여 자기희생을 한 사람들이었다』 (2001: 165-166).

“4) 자기희생: 예수. **약자가 부당하게 맞았다고 이 쪽도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폭력의 길을 가며,** 개인윤리 면에서 옳으며, 약자의 편을 든 사람이 이제 할 마지막 일이 남았다.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들인 사람들과 합일하는 일이다. ¶...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야훼의 명에 의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나 그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 자신의 과다한 영웅주의적 통솔이 불가피하였다. ... 자기희생이라는 덕목의 효과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희생을 한 사람을 더 없이 존경하는 데 있다”(2001: 217-218; 1991: 309).

“그리고 사람이 소유하는 최고의 결정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을 버리는 결정, 곧 자기희생이라는 주장을 나는 1991년에 출간한 내 책 <자전적 행정학>에서부터 해왔다”(2008: 131).

“사람이 갖는 최대의 적극적 태도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는 결단을 말한다. 조직생활의 경우 주사가 주사직에서 내쫓기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최대의 적극적 태도이다. 한편으로 최대의 사회적 태도는 독재자 편이 아니라 독재자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람을 보살피는 태도이다”(1980: 363).

9. 자기비대화와 체제 경직화

“만일에 자신이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정권 스스로가 만드는 상황이다. 법은 피치자만이 지키라는 법이 아니고 통치자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을 통치자가 지키지 않을 때 아무도 규칙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고 혼란이 생기며, 이 혼란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현상이다. 피치자인 국민에게 주는 신호는 비록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말려들지 말고 비폭력의 길을 가야 한다는 신호이다. 악법을 지키고 죽은 소크라테스는 행동하는 양심의 조상이며 끝까지 비폭력의 길을 간 예수는 평화를 이 땅에 준비하는 교회의 머리이다. 포악한 자는 스스로 망하지만 악한 자가 망한 후의 교회는 비폭력의 실력자만이 구축한다” (1986: 289).

“전체 사회에서 볼 때에 왜 국민층에서의 운동이 비폭력투쟁이어야 하는가를 다음에 열거해 본다. 1. 폭력에 기반을 둔 정권은 강한 것이 아니라 허약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는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을 단속하는 법규의 부재를 느끼는 데서 생기는 ‘아노미’ 현상은 그것 자체가 허약성을 드러낸다. 2. 폭력에 기반을 둔 정권은 자기가 정한 법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른바 시민적 불복종 운동으로 치칭되는 비폭력투쟁으로 붕괴가 된다. 3. 실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투쟁이 발생하면 자체분열 경향에 있던 폭력정권이 단결하게 되며 폭력투쟁자를 단속하므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 4. 만일에 해당 정권이 폭력투쟁자를 단속할 정도로 강경하지 못할 때에는 복병과 같이 숨어 있던 체제 내 강경론자가 폭력투쟁자를 단속을 하고 좀더 우경화한 폭력정권을 수립한다. 5. 요행수로 폭력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민주화 운동자들이 운동 방법으로 폭력에 의지하는 경우, 정권붕괴 후에 새 질서를 관리할 대안을 못내게 된다 (1986: 297-298; 교회와 세계 85).

“전체 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단적으로 말해 평화적 정권교체이다. 정권이 교체한다는 말은 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며, 평화적이라는 말은 쿠데타라든지 국민층에서 발생하는 난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난동이란 4·19와 같은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과 같은 정쟁(政爭)을 뜻하지 않는다. 난동이란 승리의에 접근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강경화에 구실을 주는 단순하고 감정발산적인 폭력행위를 말한다. 난동은 따라서 참여의 폭이 좁든가 승리를 향한 전략 전술면에서의 계산이 부족한 행동이다” (1986: 297; 교회와 세계 85).

“역기능의 내재. 유신이 홍익인간을 기점으로 하는 역사의 틀을 저버렸는데 이 저버림을 통하여 중요한 역기능들을 창출하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나의 제언이다. ... 1. 언론을 막았다. ... ¶진리의 반대어는 비진리가 아니다. 진리의 반대어는 폭력이다. 조조지 오웬의 <1984년>에서 보듯 언론을 막는 정부는 언론을 자체생산하면서 이 자체생산된 언론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폭력으로 단속한다” (1986: 315-316)
“2. 정치경쟁자를 제거했다. ... 3 도의가 타락했다. ... ¶경직화된 체제는 자체 행동을 교정할 능력을 상실한다. 4. 정부가 강조하는 일은 전시효과를 내는 일이었다. ... 5. 국내정치체제의 악을 견제할 수 있는 우방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적성국가의 견제는 견제가 아니라 적대이다” (1986: 316-317)

“집권자는 현재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 교수를 추방하려고 한다. 즉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집권자는 스스로 그 법을 버리고 새롭게 악법을 만든다’ 이것이 고난의 구조의 두번째 특징입니다. ... 마침내 그것은 더욱 진전되어 집권자는 자신이 정한 악법을 집권자 자신이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 ¶ 소크라테스가 권력이 선사한 독배를 달게 마신 것, 거기에 있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할 수 있는데도 독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집권자가 만든 법을 그 집권자 자신이 지키지 않지만 법을 따름으로써 집권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결국 독을 단숨에 들이킨 것입니다” (1986: 340-341; 『世界』 1984, 2월호 144-145, 145-146).

“끝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보는 최악의 상태가 권위주의적 태도라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최선의 상태는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1991: 49).

“정치경쟁자를 죽이는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되 철저하게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은 당위이며 사회윤리이다. 그러나 일단 정치경쟁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포악이 제거된다면 약자만을 편들기보다는 해당사회 일반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다른 하나의 중간가치로 사회적 관습의 존중을 내세운다. 끝으로 정치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도 전시효과적 치적 세우기에 급급하다. 이 경우 자기확대나 비대화가 아니라 자기희생이 당위가 된다. 이 경우에도 정권의 정당성이 일단 확보된 상황에 이룬다면 굳이 이해관계의 추궁[구]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중간가치는 각종 이해관계의 추궁[구]을 긍정시키는 가치가 될 것이며 이렇게 표출된 각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을 공공이익 public interests의 입장에서 행하게 된다” (1991: 119-120).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 및 행정체제가 너무나 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능히 받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1983: 140)

“외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형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외국이 정벌해 들어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다한 체제 경직화가 생기는 일이다. 이 과다한 체제 경직화가 공자, 맹자 당시에는 외국이 내정 간섭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다한 통치비의 부담으로 가격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외국 물건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형식으로 내정 간섭을 받는다.” (1996: 383-384).

“(5) 타국의 정벌을 받을 만한 나라는 불안한 정권 내에 분열이 생겨서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그 피가 정구공이를 표류하게 할 정도까지... 하기가 박정희 정권이 끝난 것은 자기네끼리 싸웠기 때문이며, 5공과 6공의 부도덕한 위정자들은 서로 싸우고 만나지 않는다” (1996: 389).

“과다한 체제 경직화로 인해서 생기는 오늘의 비극은 국제간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유럽권의 붕괴와 북미회담의 타결 등으로 공산주의와 대항하기 위한 체제 강화 비용이 불필요해졌는데도 정치체제를 경성으로 유지하는 데서 생기는 이득 때문에 구세력은 여전히 개혁, 즉 비용절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제 경쟁의 시대에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외국 물건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데...” (1996: 389).

“불치의 병. ... 이제는 병이 최악으로 진행된 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병명을 붙여 보자. 병명은 병을 앓는 사람의 무리를 이름짓는 것이기도 하다. 과도한 체제 경직화를 이룩하는 정국 담당자들을 현대적 어휘로 ‘구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일파와 ㅁ군사독재자, 그리고 이에 동조한 기회주의자들의 연대 세력이 그들이다”(1996: 390-391)

“공자는 네 가지 마음이 결코 없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으며, 기필코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기심이 없다.... 의, 심, 고, 아의 과정을 일이 저절러지는 과정으로 볼 때에 일하기 전에 ‘구 세력’들은 일을 의로 하되 私意로 하고, 이를 기필코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친일·쿠데타·독재의 형식으로까지 일을 해내고, 일을 한 후에는 그 한 일이 잘못되었는데도 반성이나 개선 없이 계속 고집하고, 드디어는 일이 사사로운 자기들의 私利가 된다.”(1996: 391)

“구 세력들은 밀고만 나가지 고치지를 못하는데... ㅁ(1) 기득권자는 고치라는 완곡한 말을 듣기는 좋아해도 고치지는 않는다.”(1996: 391-392)

“(2) 기득권자를 해체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백 년이 걸린다. 친일파, 군사독재자, 기회주의자 등의 세력이 득세해 온 지 해방 후만 따지더라도 근 백 년이다. ... 만일 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인해질 것이다”(1996: 394)

“(3) 구 세력은 자기네끼리의 잘못을 숨겨 주는 집단이기주의를 갖는다”(1996: 395)

“(4) 구 세력은 밑에 말하자면 하수인만 데리고 일을 한다... 구 세력에 해당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를 만홀히 여긴다.”(1996: 396)

“(5) 구 세력들은 한번 관직을 떠난 후에도 끈질기게 이사장, 총재, 회장, 위원장 등 이익이 되는 자리를 계속 차지한다. ... (6) 구 세력은 자기들끼리도 재산 분배를 공정히 하지 않아 뒷사람은 아랫사람을 못살게 하고 이를 취한다.”(1996: 397)

“구 세력 내부에서 뒷 사람이 너무 치부해서 상하 간에 반드시 단결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끼리끼리 이해가 맞고 ... 그 밑에서 아부하는 하수인이 있기 마련이며, ... 한 자리가 끝나면 비록 작은 자리지만 다시 자리가 생겨서, ... 자기 잘난 맛에 꿈속에 살고 취해서 죽는 자가 제일 나쁜 ‘정부의 병’ 환자의 병균들이다. 이런 병을 치유하려면 약 백년이 걸린다는 것이 위 (2)이다. ... 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순환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만이 그런 것은 아니며 어디엘 가나 그렇다. 직장, 학교, 심지어는 사찰, 교회까지도 모두 그렇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 **친일파와 군사독재자와 이에 빌붙은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와 군사독재자와 이에 빌붙은 무리에 해당하는 자들은 아마도 다음에 인용할 김광규 시인이 그의 시 <추도의 말씀>에서 말하는 공화국이 몇 번씩 바뀌어도 아랑곳없이 오래 사는 사람일 것이다.”(1996: 398)

“사람의 본질은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 있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기희생에 해당하는 의에서 시작된다. **정부의 악을 시정하는 이웃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 비대화의** 길을 악한 정부는 걷게 되는 것이 5 번 조치이다. ... ‘말을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 각 개인이 윤리적으로 살게 한다 → 각 개인이 사회윤리를 갖게 한다 → **정부가 큰 일만을 내세우며 외국이 간섭해 들어올 수도 없는 권력의 비대화가 아니라**, 정부가 자기가 마땅히 사용하지 말아야 할 권력을 억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다음 장에 이어진다.”(1996: 401)

“끝으로 의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 ... 정부권력의 **비대화**가 일의 담당자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듯 사람의 진가는 물질이나 육체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비대화**의 반대개념이 ‘자기희생’이다”(1996: 405)

“큰 목수는 사람을 가르침에 반드시 목수로 법으로써 하니, 목수의 일을 배우는 자도 반드시 목수의 법으로써 해야 한다. ... 말하자면 서지 말고 가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반퇴화의 요령이다.”(1996: 178)

“(악한 통치자는) 1) 위장한다... 2) 교묘한 말을 한다. ... ㅁ 이렇게 악한 통치자는 백성에게 아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걸인같이 구걸도 하여, 얻어낸 것으로 백성을 해치는 도구를 만든다. ... 하루는 한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숲에 와서 하는. 말이, 뭘 하나 만들고자 하니 나무들에게 작은 가지를 달라고 말한다. 나무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에게 나뭇가지를 준다. 그 준 나뭇가지를 갖고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지 아는가? 나뭇가지로 도끼의 손잡이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이 도끼로 나무들을 차례로 잘라냈다. 투표할 때마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논의되는 것도 다 교묘한 말에 속아 도끼자루 할 것을 나무꾼에게 내주지 말라는 이야기다.(2001: 138-139)

“(3) 약속을 어긴다... 강자가 약속을 어기는 부도덕성에 차이가 보인다. 은혜를 갚겠다고 약자에게 약속한 것을 강자가 안 지키는 것이 가장 부도덕한 행위이다. 하물며 강자의 편의를 위하여 강자가 약자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면 오히려 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이야기도 있다. 이 경우 이런 약속이 이행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고자 한 녀석이 심통 나게 된다.”(2001: 140)

“(4) 일이 곧 욕심부리는 것이다”(2001: 142)

“(5) 사람이 곧 적이다. ... 하나는 최소의 인간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ㅁ 사람이 곧 적이라고 통치자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의 결과는 사람이 통치자 자신을 적어도 실패케 하며 나아가 스스로 멸망케 한다는 것이다. ... 사랑이라는 욕심에 자체분열을 일으켜 실패하는 사자 이야기도 있다. 사자가 아름다운 처녀에게 반해서 그녀의 부모에게 청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요구한다. ‘각하의 청혼을 받아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연약하고 젊어서 각하의 강력한 사랑이 행여나 제 딸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됩니다. 각하께서 갈고리 발톱과 이빨을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자는 처녀를 사랑하였으며로 발톱과 이빨을 빼고 처녀의 부모에게 갔더니 부모는 활짝 웃으며 동등이로 사자를 내쫓았다. 발톱과 이빨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자가 스스로 자멸함을 뜻한다. 박정희 독재자가 자신의 고향사람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듯 **자체분열**을 하여 끝장을 내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독수리와 화살’ 이야기이다. 하늘 높이 비상중인 독수리가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곧 통증을 느껴 죽게 된다. 지상으로 천천히 하강하는데 피가 몸에서 뚝뚝 떨어졌다. 자기 몸체에 꽂힌 화살을 보고는 화살의 자루가 자신의

동족의 깃털로 장식된 것을 보았다. 독수리의 마지막 말은 ‘우리는 종종 적에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구나’였다”(2001: 146-147).

“통치자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런 정권의 ‘일’관이다. **이런 정권은 아랫사람을 눌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을 하며, 교묘한 말을 하며, 약속을 어겨서 일을 한다.**... 이에 반하여 민주형 행정에서는 국민을 위하여 여당이 스스로 손해를 본다. 약자인 국민의 몫을 요구케 해 이를 받아들이며,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이 된다. 정부는 권력남용을 삼가며, 국민이 신뢰할 존재가 정부이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는 ‘말’을 하는데 성공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2001: 240).

“7. 피치자는 통치자에게 통치자도 가지고 있는 이성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며 이 이성을 환기하는 말로 요구한다... 8. 악한 통치자는 비폭력 조치를 동반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악을 바로잡는 이이기에 통치자는 국민보다 결코 높은 이가 아니다. ... 11. 비폭력은 국민이 악한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데 사용될 첫째 덕목이며, 무엇인가를 통치자에게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한 자가 드디어 무슨 사적인 이익을 통치자에게서 얻어서도 안된다. 12. 이 사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행위를 ‘자기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 이 성숙해가는 국민의 요구, 즉 **계몽된 시민의 수준에 따라 국가의 수준이 결정된다.**”(2008: 66)

“정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하는 중대한 일, 즉 내 나라를 빼앗았던 나라의 악을 용서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 용서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일본이 전과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용서할 자격이 있는 세력이 용서하고, 악을 저지른 자가 전과를 뉘우쳐야 한다는이 두가지 요건이 한국 정치에서는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 20 세기 말에 악한 정권이 붕괴한 나라들과는 달리, 악한 정권인 박정희가 붕괴한 후 18 년 만에야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이 바로 이 불완전한 행위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2008: 148).

“첫째, 조상이 그렇게 끔찍했으면 일본 놈들이 조상이 정한 성을 갈라고 했을 때에 어찌하여 내 중학교 때 예에서 볼 때 인구 68 분의 65 가 일본식 창씨개명을 했나? 둘째, 그러니까 일본식 창씨개명도 일본 놈의 명을 어기기가 무서워 살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106 쪽) 국민을 얼마나 공포에 질리게 했으면 유권자 가운데 92.9 퍼센트가 투표했는데 투표자의 91.5 퍼센트가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무섭다고 이렇게 움츠리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233 쪽)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우리 국민이 91.5 퍼센트 찬성으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는 맥없는 국민임을 알았다. 마치 일제 때 우리 반 학생들 68 명 중에서 65 명이 일본식 창씨개명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2008: 234)

“사람에게는 감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싸움꾼은 감을 가지고 싸운다.** 내가 슬펐던 이유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스운 싸움의 종말 말을 감 잡아서였다. 나는 이 우스운 싸움의 종말이 승리가 아니라는 경험을 8:15 에도 했었다. ... 유신정부가 너무 못난 짓을 해서 우리를 잡았지만, 이 일로 내가 감 잡은 것은 **이런 못난 짓 하는 놈은 스스로 망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찾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에게 ‘너희들은 유신헌법이라도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큰일을 맞는다’라는 말을 종종 했었다. 너희가 만든 법이라도 지키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도 했다”(2008: 346).

“1976 년에 평화시장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자살한 것도, 악법이라도 지키라는 것이었다. **통치 체제가 악법조차 안지키면 체제 내 구성원들이 행동의 준거를 잃어 체제의 정당성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런 체제는 적에 의해 망하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저놈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변하기를 바랐다. 저놈들이 우리와 대화해서, 저놈들이 우리와 맞부딪쳐서 우리의 말을 듣고 꼴을 바뀌어야 하며, 저놈들이 10 대 선거에서처럼 아슬아슬한 표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원하게 표차가 나서 새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었다. 나는 **명예혁명가**였다”(2008: 347).

“나는 교도소에 넘겨지기 전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취조한 놈이 나를 때리기도 했다. 이때 맞으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맞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네끼리 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출옥하자마자 이를 만인 12 월 12 일에 나는 곧 이놈들의 계속되는 못난 짓을 목격했다. 못난 놈의 특징은 잡기만 하는 것이다. 박정희 사후 청와대를 지키라고 놔두었던 전두환이 ‘잠을 생각’을 하고 우선 12 월 12 일 정승화 계엄사령관—박정희가 죽은 다음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을 연행하는 충격 사건을 일으켰다”(2008: 347).

“4·19 날 안병무 교수 맥에서 예춘호, 김종완, 고은, 김상현, 문익환 내외, 이해찬, 이해동 내외, 우리 내외가 모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어차피 쿠데타 정부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후광은 나가 있으니 안전하고, **다만 재야가 과격해지지 말아야 이 사람들이 파쇼화하는 구실을 안 주게 된다**’”(2008: 391).

이 문서의 끝.